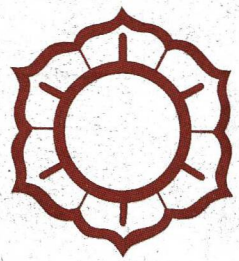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05년
11월 1일
화요일
제72호

이 달의 종조법설

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인생관이라 한다. 인생관이 평범하고 지극한 것일 때 그러한 인생관에 입각하여 영위되는 인생이 무의미한 것으로 끝맺게 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사려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가치한 자연적 인생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에서 우하려 한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총지중, 금강 삼매야계단 전법관정수계, 신규스승 6명 탄생

총지중(총리원장 우승)은 10월 18일 서울 총지사서 금강삼매야계단을 설치하고 전국의 스승들이 동참한 가운데 스승이 아사리가 되는 의식인 전법관정수계를 봉행하였다.

이날 전법관정수계에서 증계아사리에 불멸심, 일성해, 의강, 하정, 삼암기로스승을 위촉하고, 전계아사리에 우승 총리원장, 교수아사리에 법공 전 총리원장, 결계아사리에 시각화전수, 최상관전수, 갈마아사리에 원봉기로스승을 위촉하였다.

전법관정수계식은 개단선언, 삼취정계의 여의보주가 강명이형언하여 육근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거울이 빛나고 밝아서 만다라의 장엄함이 나타나리라, 다섯 지혜의 등불을 등우어서 삼유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고 삼망의 구름이 영원히 가에서 원원이 영겁에 밝으리라는 삼취정계게송, 참회서원, 오대서원, 수계자



귀명참회, 대아사리 청사봉독, 유가삼밀, 수계 권청문봉독, 전계아사리 향수 및 서수가지, 전계아사리 수계신덕교설 및 삼취정계교설, 전계아사리 수계(사중금계, 십중금계, 삼매야계), 전계아사리 서수인지문, 관정 및 서수 수여, 수계증 수여, 법의 및 금가사, 행위승계게송, 참회서원, 오대서원, 수계자

아심경, 회향서원,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수계를 받은 아사리는 지공정사, 해안정전수, 자심관전수, 원당정사, 행원심전수, 해원정전수, 지정정사, 승원정사, 모원화전수이다.

특히 원당정사, 행원심전수, 해원정전수, 지정정사, 승원정사, 모원화전수는 이번 전법관정수계에서 신규스승으로 임명되어 교화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관정수계란 밀교의 수행자에게 계(戒)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밀교의 스승을 아사리라 하는데 이 스승에게 주는 계를 전법관정이라 한다. 전법관정을 행할 때는 불정삼매야계를 내린다. 관정은 여래의 다섯가지 지혜를 상징하는 물을 아사리(밀교스승)가 제자의 머리에 뿌려주는 의식으로 부처님의 지위를 계승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스승이 제자나 교도들에게 주는 계의 의식이 관정이다. 전법관정은 밀교의 스승인 아사리가 되는 관정의식이다.

올해 경상남도 예술인상 수상 총지중 마산 윤천사 이필이 보살



이필이보살 (70·전 경남무용협회장)이 선정되었다.

경남예술의 발전에 공이 많은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경남예술인상의 올해 수상자로 무용가이며 마산 윤천사 교도 이필이보살(70·전 경남무용협회장)이 선정되었다.

경남예총(회장 이영환)은 9월 22일 오전 11시 예총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16회째를 맞는 경남예술인상 수상자로 이필이보살을 선정하여 10월 20일 경남도립미술관 다목적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경남예술인상의 수상자인 이필이보살은 "1962년 한국무용계의 거두인 고 김해량 선생과 함께 한국무용협회 마산지부를 창립하여 마산 및 경남무용의 씨를 틔우는데 산파역할을 했고, 한국무용협회 경남지부장을 17년간 역임하면서 경남무용인 합동공연을 개최하여 명실공히 경남무용인의 종합 무대로서 지역 무용인 간의 상호교류와 화합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남무용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를 마련한 점"

이 높이 평가돼 수상을 했다. 경남예총은 경남예술인상의 권위와 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상 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율과 추대 및 합으로 수상자를 선출하기로 했으며, 현재 14개 시예총과 8개 도단위 협회에서 대상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있어 동일 장르간 후보자 추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매년 지역별 장르간 많은 후보자들이 경쟁을 하여 예술인상 교유의 목적인 화합과 협의에 의한 추대인 예술인상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후보자 추천시 추천 단체는 장르별 도단위 협회장과 협의후 각 예술장르 별로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1인을 사전 조율하여 공동 추천하기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많은 상을 수상하였지만 이번 경남예술인상의 수상은 특별한 상으로 감회가 새롭다."며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이필이 보살은 총지중 마산 윤천사에서 20여년간 수행하고 있으며, 신심이 돈독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신규스승 명단



원당(김경창) 정사 (벽릉시근무)



행원심(김미숙) 전수 (단항시근무)



해원정(김혜정) 전수 (해정시근무)



지정(김용주) 정사 (총리원근무)



승원(공이영) 정사 (총지시근무)



묘원화(김지정) 전수 (총지시근무)

대승보살의 밀엄국토 건설

관성사, 백월사 헌공불사

총지중은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관성사(주교 해정) 헌공불사(낙성법회)를 지난 17일에, 대전시 도마동에 위치한 백월사(주교 법우)헌공불사를 20일에 각각 봉행하였다.

관성사는 총기 1년 9월 심인각보살님이 사택을 무상보시하여 육합서원당으로 포교활동을 하다가 총기 9년 8월 종로구 행촌동 건물을 매입하여 관성사로 명명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아주 유서깊은 사원으로 관성사가 신축하게 된 계기는 기존의 관성사가 종로구 소방도로에 일부만 편입되어 부득이 매각하게 되어 종로구 행촌동 주변 대지를 매입, 총기 32년 10월 지진 불사를 봉행한 후 대지면적 137.49평(454.4㎡) 연면적 169평의 철근, 콘크

리트구조, 기와지붕구조 3층 건축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

백월사는 총기5년 6월 대전시 도마동, 길분례보살 소유주택 한 동을 임차하여 법장서원당으로 개설하였고, 총기 9년 10월 법장서원당으로 사용하던 사원을 매수(買受)하여 사원명을 백월사로 개칭하였다. 총기33년 기온 백월사가 도마시장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도마동에 대지 103평, 연면적 226평의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여 서원당으로 개설하였다.

이날 헌공불사에서 효강 증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실천은 우리 일상에 있음이니, 신·구·의로 짓는 죄업을 금하는 것이요, 양설하여 이간하지 않는 것이며, 악구하여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

오, 꾸며서 남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망어로 남을 여지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함께 내가 모든 중생이며, 모든 중생이 바로 나임을 깊이 인식하는 동체대비심의 보살정신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 일입다(一入多) 다입일(多入一)의 대승적 실천을 말한다 하겠습니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와 '너'라는 분별심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실천했다 해도 그것은 거짓과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한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실천! 그 모두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하는 것에 귀착됩니다. 내 마음 닦는데 정진한다면 나의 실천은 저절로 되는 것이며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죽비소리

전쟁에 나가 수천의 적을 일개장부가 이기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김으로써 회상의 전사(戰士)됨만 못하느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 가장 현명하나니 그러므로 사람 중의 영웅이라 한다 마음을 단속하고 몸을 길들여 모든 것 털어 버리고 최후의 경지에 이른다 **법구경** 중에서



불교총지중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의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엄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진언의 세계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사설

화합과 개혁으로 종단발전

10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된 추계 강공이 전체 총지종 스승님들의 참여 속에 치러졌다. 교리학습과 강공 중심으로 진행된 예전 강공과 달리 이번 강공은 회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봄부터 개교한 총지불교대학의 운영으로 강공기간 중에 교리 학습을 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종단 내에 원의회와 승단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강공은 전체적으로 보면 승단의 화합을 통한 개혁이라는 종단의 방침에 따른 강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현안들 가운데서 우선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안들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종단은 그동안 한편으로는 생활 속의 불교라는 창조 정신의 실증으로 인하여 교세의 위축을 겪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임 종령들의 잇따른 열병으로 인하여 종단의 단결력의 약화와 기강의 해이를 겪어왔다.

한편으로는 개혁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승단의 화합을 줄기차게 외치고 이번 강공도 이런 선상에서 치른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과 화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이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조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기 쉬운 관계에 있다.

속된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격인 것이다. 운 좋게 두 마리 토끼가 모두 한 방향으로 도망가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겠지만, 도망가는 토끼가 사냥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달릴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현명한 사냥꾼은 어느 토끼가 더 살겠는가를 보고 둘 중에 한 마리를 먼저 쫓을 것이다. 개혁과 화합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종단은 승단의 화합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종단의 화합뿐 아니라 법정원을 중심으로 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총지대학의 개교 외에 본격적인 개혁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 할 때마다 개혁보다 화합 쪽에 무게를 둔 방침에 편승한 일부 사람들의 비협조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극소수 이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다른 교도를 선동하여 종단의 중풍을 저하시키고, 승단과 교도들간의 화합을 깨뜨리는 교도들까지 나타났다.

평소에도 화합에 무게를 둔 종단 운영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강공 또한 종의회와 승단총회의 진행에서 화합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이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종단의 개혁은 새로이 종단의 조직과 기구 및 법규가 개편된 이후에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화합의 필요성 때문에 종단의 개혁 작업이 미루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새로이 종단의 조직과 기구가 개편된 이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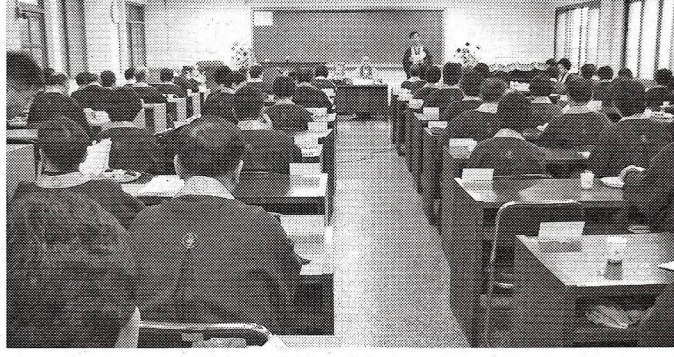
종단은 현재 도태하느냐 증흥을 이루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장님이 아니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은 이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종단의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의 화합작업이 종단의 새로운 조직과 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하고 참회할 사람들은 참회하여 종단의 전 구성원들이 일심으로 화합하여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화합을 바탕으로 조직과 기구가 개편되면 여기에 따라 종단은 종단의 화합을 격정할 필요 없이 과감한 종단개혁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66회 추계강공회 원만회향

각 사원사무지도감사, 교화활성화방안모색



추계강공회에서 전국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단정책을 토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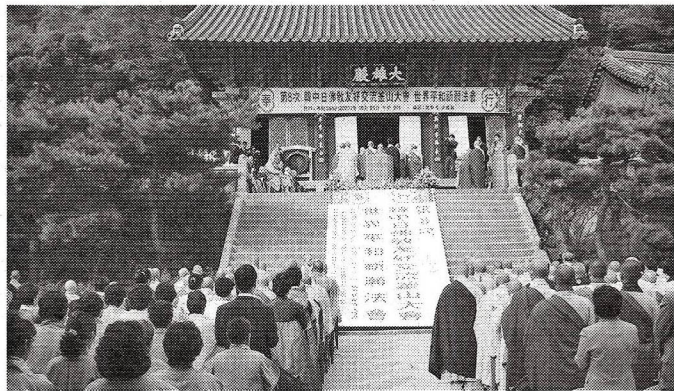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동안 총리원 반야실에서 전국 스승들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된 제66회 추계강공회에서 각 사원 사무지도감사, 교화활성화 방안, 사원신축, 불단장업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추계강공회는 원의회,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종단의 현황을 조망하고, 문제점 개선, 총기34년도 추계예산, 총기35년도 총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효강 종령예하는 개강식과 종강식에서 법어를 통해 "현시대의 흐름은 급변하고 있으며, 교회의 방편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원정 종조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스승들은 교화활성화에 매진해야 합니다. 교화활성화만이 종단의 미래와 희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태함과 안이함을 버리고 혁신적, 창의적, 활동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로 증생제도를 위해 더욱더 매진해야 합니다. 또한 승단은 화합과 단결을 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단합된 힘이 결집될 때 종단의 정책이 집행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종단의 발전을 위해 결집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단합된 모습으로 교화활성화에 노력합시다."라고 말했다. 특히 승단총회에서 우승 총리원장은 종단의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국 각 사원사무지도감사 실시, 덕화사 헌공불사 봉행, 수인사 사원신축, 승단의 수행풍도 조성, 부산지역 요양원건립, 향미염송과 오체투지 시행, 교도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중무쟁쟁의 향후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8차 한중일 불교도대회

"세계평화로 인류의 행복추구"



부산 범어사에서 한·중·일 삼국불교도가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한중일 불교의 '황금유대'를 다지기 위해 열린 제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지난 10월 24일부터 25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와 삼광사에서 총지종 우승총리원장을 비롯하여 한국불교 종단 대표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날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위원회 본회의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초청 환영만찬이 진행됐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서는 한중일 불교대회의 운영방향과 내년도 한중일 예비모임과 본대회의 일정을 논의하여 예비모임은 내년 3월 30일, 31

일, 본대회는 10월 25일, 26일로 잠정 결정하고, 내년도 예비모임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초청 환영만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불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호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국가적 연대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 고바야시 아키히코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의 훈훈한 초청만찬회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이틀째인 25일에는 세계평화기원법회가 부산 범어사에서 봉행되어 '세계평화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고,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학술강연회에서는 "삼국의 불교와 세계평화,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평화"의 주제로 한중일 삼국에서 3명씩 발표를 하였다. 저녁에서는 천태종 삼광사에서 한국예술공연을 관람하며 한중일 삼국 불교의 우호와 증진을 다짐하였다.

알림

- 부산 정각사는 11월 18일 명륜동, 부곡동지역 독거노인을 초청하여 점심공양을 대접합니다.
만보사 지성정사 모친께서 지난 10월 18일 열병하였습니다.
사원사무지도감사 11월 14일~18일 서울경인교구, 11월 21일~28일 충청전라교구에서 시행됩니다.

대법고

총지종 불공의 의미와 수행법

불공이란 원래 부처님께 공양하는 물건이나 공양을 올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 공양물을 올리면서 축원하는 행위까지도 불공이라고 한다. 즉 부처님께 축원을 빌며 기도를 하는 것도 불공에 포함된다.

불공에는 물질적인 것을 공양하는 사불공(事佛供)과 정신적으로 행하는 이불공(理佛供)이 있는데 「대일경」 「공양법소」에는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불공이라 하고, 향·꽃 등을 바치는 것을 사불공이라 한다.

총지종에서 불공은 좁은 의미로는 임의로 진언을 염송하고 손으로는 결인을 맺고 뜻으로 관상(觀想)하는 삼밀관행을 의미한다.

삼밀관행의 목적은 현실적인 면에서 소원선취와 재난소멸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인 면에서

깨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공을 강조하면서 시시불공, 처처불공을 주창하였다.

불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참된 생활, 그 자체가 불공이라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가짐과 욕심부리지 않고 웃으며 진언행과 더불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생활불공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생활 자체가 불공이어야 한다. 생활시불공이요, 불공시생활이다.

또 총지종의 불공은 자기불공, 자행불공이다. 남이 대신해주는 불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행하는 불공인 것이다.

불공은 진언행자의 서원선취는 말할 것도 없고 행자의 인격완성을 이루는 수행법이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금강같이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며, 난행고행을 실행케 하는 좋은 난

회가 되고, 애착이 화하여서 평등한 마음이 되게 하고, 탐심이 화하여서 보시하는 마음

불공은 어두운 내마음

뒤아서 지혜를 증득하는 것

이 되게 하며, 진실이

화합하는 마음이 되게 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가 밝고 인과를 이는 마음이 되게하는 도량이 되게 한다.

또 불공은 버리는 서원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즉 서원선취보다 애착과 탐욕, 나쁜 습관등을 버리는 서원으로 염송하여야 한다.

밀교는 원래 현세이익을 입게 하는 법이 있으므로 가지기도(加持祈禱)를 중요한 행사로 하고 있지만 교도들은 대개 과욕으로 가족 전부와 기타 여러 가지 서원으로 불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공이 재화를 예방하고 증익을 가져오

지만 긴급한 사상이 단기간에 성취되기는 어려우므로 서원이 있어 불공할 때는 그 서원만을 넣어서 단일정진으로 불공하는 것이 좋으며, 일정기간과 염송 횟수를 정하여 불공을 하고 회사를 반드시 겸하도록 한다.

특히 자식 잘 되기를 서원하거나 출산하기를 서원하는 정이 불공 중에는 더욱 계행을 지켜야 서원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계행을 범하면 불공중에 마장만 일어나고 공덕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총지종에서는 사불공(事佛供)으로써 훈향과 회사를 행하고 이불공(理佛供)으로써 진언염송을 행한다.

이러한 불공은 서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항상 행할 수 있다. 종조 원정 대사가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5년 9월 22일부터 2005년 10월 26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Lists variou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Buddhist Relief Fund.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인 경우 회계장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총지칼럼

불교인이 된다는 것



김종인

- ▲(현) 총지중보 편집위원
-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 ▲(현) 불교평론 편집위원
-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불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매우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인 동시에, 매우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이해하

면 불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끔 절에 들어서 부처님께 삼배, 혹은 백팔 배를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진지한 불교인이 되려면 법회에 참석하여 삼배나 백팔 배를 한 다음 법회에 참석하여 설법을 듣고,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외우면 된다. 이보다 더 진지하고 세련된 불교인이 되고 싶으면 요즘 유행하는 불교교양 대학에 등록하여 교리 강좌를 들으면 된다. 혹은 스님이 있어 법명을 하나 주고 화두를 하나 얻으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불교인이 된다.

불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외형적으로 그리는 것은 이처럼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교인들이 이러한 외형적 활동을 하는 내적인 동기, 즉 불교인이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깨달음이나 열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며, 열반에 드는 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깨달음과 열반이 "불교인이 된다는 것"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깨달음"

이나 "열반"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깨달음"이나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 이상이지 대다수 불교인들의 실천적 과제는 아니라는 데 있다. 그것은 "천당에 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궁극적 이상일 수는 있어도 그들의 실천적 과제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천당에 가는 것"을 실천적 과제를 삼고

며, 열반 또한 논리적으로는 이승에서도 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대승불교는 열반이 이승을 떠나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깨달음"과 "열반"은 소수의 불교 엘리트들의 종교적 이상일 수는 있어도 절을 찾는 대다수 불교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열원일 수는 없다. 세속의 온갖 인연의 뒤얽힘으로부터 생겨나는 수많은 번뇌와 망상과 싸워야 하는

보의 결과이다. 무리하게 끊고 놓는다면 그것은 더 큰 업보를 쌓을 뿐이다. 우리는 실제로 출가를 통해 업을 닦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업보를 쌓고 있는 많은 출가자들을 보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 한국 불교도들이 참된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나 "열반"이라는 비현실적인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우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실천적 과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실행 가

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도 불교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수를 보아도 이들의 주장이 전혀 허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적 규범들이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덕적 가치들이 조롱당하고 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종교를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도덕적 가치와 규범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인들은 매우 양극적인 종교적 목표에 사로잡혀 있다. 지극히 복과 열반 혹은 천당에서 삶의 그들의 목표이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도덕은 한국 종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의 불교와 기독교가 그 본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불교나 기독교가 결코 도덕적 가치를 가버려 버리는 종교가 아니다. 열반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인 팔정도의 반은 도덕적 규범이며, 모세 십계명의 반 역시 도덕적 규범들이다. 도덕적 가치의 실천을 도외시키고 불교나 기독교의 종교적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뿐 아니라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다. 불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가치의 실천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이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불교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참된 불교인은 실현 가능한 실천이 앞서야

모든 현실의 삶을 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정신상태가 원만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깨달음"과 "열반"을 추구하는 것은 "천당에 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며, "현실의 삶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천당에 가는 것"은 "현재의 삶"이 끝이 나야 가능한 일이지만, "깨달음"이나 "열반"을 얻는 것은 "현재의 삶"이 끝이 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분명 이승에서의 일이

일반 신도들에게 "깨달음"과 "열반"은 당연한 과제일 수가 없다. "깨달음"과 "열반"은 번뇌와 망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또한 현실적으로 온갖 인연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불교인들이 불교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세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끊을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인연의 끈 때문이다. 끊을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끈은 또한 끊어서 안 되고 놓아서 안 되는 그들의 업

능한 실천적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실천적 과제의 최우선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규범들을 실천하는 일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규범들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가장 종교적인 사회 가운데 하나이다. 수많은 사찰과 교회, 불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있다. 한국의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신도수를 다 더하면 한국 인구의 반 이상이 종교인구이다. 이들 모두가 절이나 교회에 나가

적으로 후원해 주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친구의 도리입니다.

『아함경』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질고 착한 이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그릇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어질고 원(願)이 커서 능히 남의 그릇됨을 잘 분별하고 그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둘째는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나 남의 이익을 보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남의 잘못을 보면 근심할 줄 알며, 남의 덕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의 악한 행위를 보고 능히 자신의 악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셋째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나 남의 계움을 반감하지 않고 남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남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고 조용히 훈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넷째는 이익 되는 일과 행동을 함께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몸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공포로부터 구제하여 함께 깨닫기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이를 악한 벗이라 하는가?

첫째는 두려움을 주어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이나 먼저 주고 나중에 빼앗거나 적게 주고 많이 바라거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힘으로 친교를 맺는 사람 등입니다.

둘째는 감언이설이 많은 사람이나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도 비밀이 많으며 남이 고난에 처하였을 때 구제하지 않거나 모든 착하는 사람 등입니다.

셋째는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기를 부리거나 조그마한 허물을 큰 시비거리로 삼아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등입니다.

넷째는 덕이 되지 않은 사람이나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할 때 음행이나 노래 부르고 춤 출 때만 벗이 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네 부류의 착한 이와 나쁜 벗을 정의하시고 착한 이는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은 항상 멀리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달의 설법문안

우정을 키우기 위해 지켜야할 도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그 자체로 무수한 관계 무수한 인연 속으로 들어 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과 자식, 친구와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 등 각종의 보이지 않는 밀고도 가까운 인연의 사슬이 엉켜져진 실타래 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사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문명의 발달로 멀기만 했던 지방과 나라들이 이제는 모두 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달 몇 날을 가야했던 거리들이 놀랄 만큼 단축되었고, 이제는 지구가 하나의 마을 즉 지구촌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들도 비행기로 반나절에 해당하는 12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TV로 인터넷으로 세계의 뉴스를 방안에서 들여다보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연(無緣)처럼 존재했던 세상 인연들이 모두 유연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와 세상은 가까운 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독단적인 존재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싫어 먼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완전히 절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빌 것도 없이 인간은 이 지상에서 태어난 이상,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이 인연의 질긴 사슬로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연이란 한마디로 원인과 조건을 일컫는 말입

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온갖 현상들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모여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연이 모여 이룩된 현상은 독립자존(獨立自存)의 것은 없고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그 현상도 또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또한 인연의 속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자법문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온갖 현상은 다 자업(自業)의 인연의 힘으로 하여 생겨나느니라. 이 인연이 시시각각 머무르지 아니하여 번개빛과 같거나 인연 탓으로 온갖 사물이 생기고 인연 탓으로 온갖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인연을 떠난다면 업보(業報)도 없으리라”

인연이란 모든 존재가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인연입니다. 그에 비해 업이란 인간이 하는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신(身)·구(口)·의(意)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신구의 삼업의 활동을 통해 생기는 영향력을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과 삼업으로 사물이 생겨나고 그 삼업 때문에 과보 또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란 아주 오랜기간 막역한 동무라는 말이지만, 그 보다 넓은 의미로 인생의 동반자요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인연들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삶 그 자체로 필연적인 인연들이 물체에 그림자가 따르듯 이따기 되어 있습니다. 늘 중생은 친한 것과 친하지 않은 것을 가리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려서 자신의 업이 좋아하는 것은 친근하게 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 중생의 속성입니다.

그런 까닭에 온갖 사랑과 증오가 생겨나고 그리

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등의 온갖 병폐, 팔만 사천 번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요사이 유행어로 서로 코드가 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중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생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만을 따져서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희생, 봉사, 자비, 인정 등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해 평가가치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편견과 오만, 그리고 독선에 가득차서 남의 생각을 무조건 용납하지 못하는 소아병적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친구와 우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혈육의 정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부모와 형제마저도 배반하고, 이익 앞에서도 혈육도 의리도 윤리도 도덕도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도 저버린 채 패륜을 저지르는 범죄가 날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은 부모를 봉양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내다 버리는 것이나 부모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갈부림을 서슴치 않는 일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는 세태 앞에서 친구간의 의리라는 말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솔직히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천과 강물이 많이 오염되었다고 하나, 깊은 산골 어디엔

가 맑은 샘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희귀하지만 맑은 샘물이 있듯이 이 세상 어디엔가 참다운 친구 사람다운 사람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 희망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정이란 친구간의 끈끈한 정보다 친금보다 귀한 의리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좋은 덕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고할 수 있는 것이 우정이라고 많은 명사들이 한결같이 우정에 대하여 찬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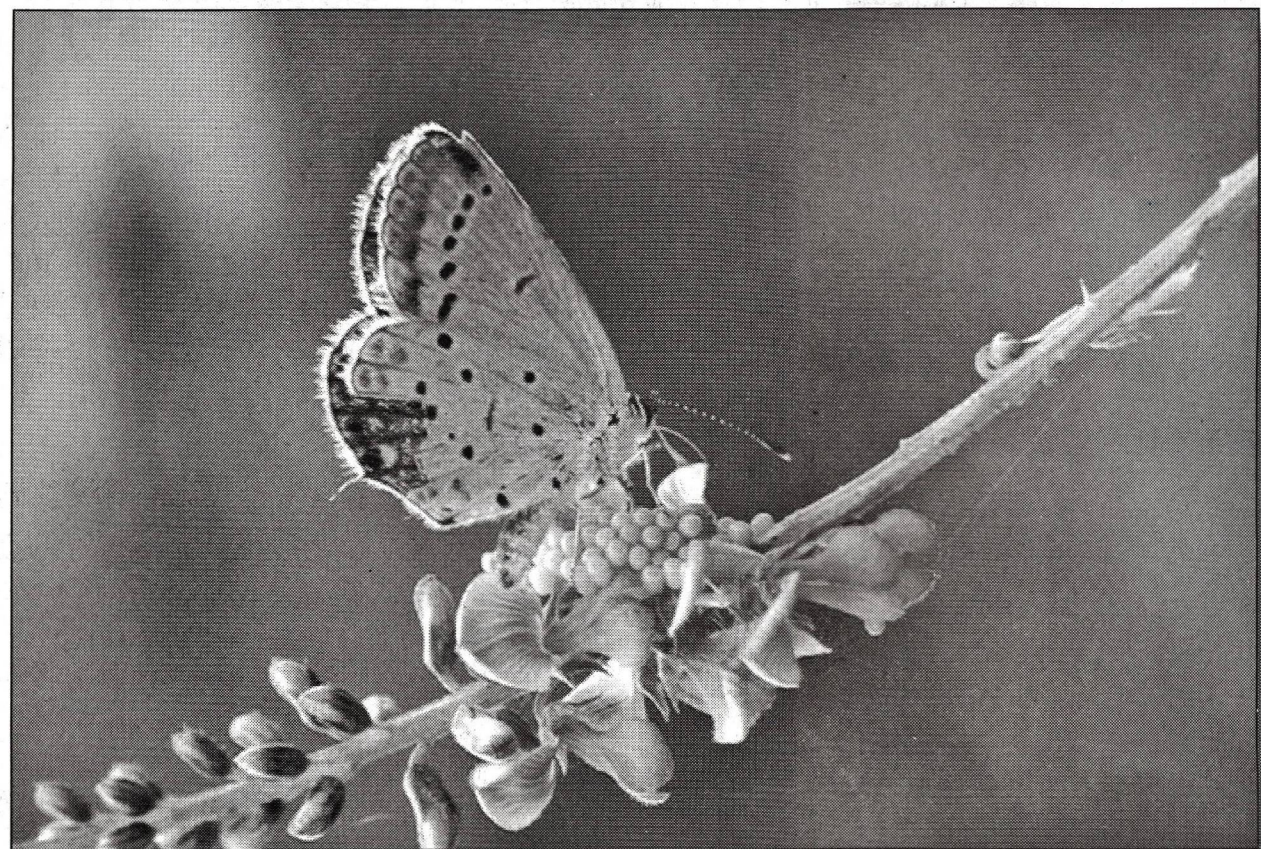
의(義)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희생을 하겠다는 말로 인간 정신의 가장 숭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우정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달게 받는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리한 자기희생을 통해 상대를 이롭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찍이 원효대사께서는 “모두들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처럼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수 있다면 성인처럼 믿고 존경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우정이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라도 언제나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멀리 달아나 모른 척하고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까이 한다면 진정한 우정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동고동락하는 것이 우정을 이루는 정신이라 하였습니다.

참 우정이란 친구가 곤경에 빠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내 일처럼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세상살이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곤경이 닥쳐왔을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힘닿는 데까지 경제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중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중의 역사를 만듭니다.

법 / 추 / 지 / 앞 / 는 / 사 / 람 / 들 / 총 / 지 / 중 / 보 / 사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③1

태장계만다라 '금강수원(金剛手院)'의
금강살타(金剛薩埵) · 발생금강부보살(發生金剛部菩薩)

지난 호에서는 소항보살 · 도항보살 · 연화부사자를 끝으로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불보살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다. 관음원에는 총 37존이 모셔져 있다. 이번호부터 태장계만다라의 네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금강수원(金剛手院)'의 불보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강수에는 총 33존이 모셔져 있다.

금강수원(金剛手院)

금강수원은 중대팔엽원의 남방, 즉 바라보는 이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연화부원(또는 관음원)에 상대되는 부분이다. 금강수원을 달리 살타원(薩埵院), 금강부원(金剛部院)이라고도 한다. 금강살타를 주존(主尊)으로 하므로 살타원(薩埵院)이라고 하며, 불부(佛部) · 연화부(蓮華部) · 금강부(金剛部)의 삼부(三部) 중에서 금강부(金剛部), 즉 여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금강부원(金剛部院)이라 한다.



금강살타

금강수(金剛手)란 손에 금강저(金剛杵)를 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강살타를 가리킨다. 금강살타는 대일여래로부터 밀교를 전수받은 제2조이기도 하며 대일여래의 교령(敎令)을 실천하는 밀교의 중심되는 보살이다.

이 금강수원의 제존(諸尊)은 연화부원의 제존이 여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지혜의 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의 장기(杖器)로서 온갖 장애를 파괴(摧破)하여 큰 지혜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대비(大悲)와 대지(大智)란 지동처의 수려의 양 바뀌처럼 잘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중대팔엽원을 사이에 끼고 연화부원, 금강수원의 양원(兩院)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그 자체의 긴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금강수원에는 주존(主尊)이 삼열(三列)로 21위가 계시며, 그 존 사이에 작게 그려진 사자(使者)가 12위가 있으니, 도합 33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주존의 21위가 '대일경'에 실려져 있다. 「구연품」에 5위가 실려져 있고, 나머지는 '비밀만다라품'에 실려져 있다.

금강살타(金剛薩埵)

금강살타는 금강수원의 주존으로 '금강석처럼 견고한 의지를 갖고 깨달음을 향해가는 보살'이란 뜻이다. 종자인 '반'은 '바즈라 사트바'의 머리글자에서 나왔다. '홀'은 금강수원에 공통되는 종자이며, 금강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모든 원적(怨敵)을 격파하는 것처럼 금강저에 비유한 지혜를 가지고 일체의 장애를 초과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밀호는 진여금강(眞如金剛)이며, 삼매야행은 오고금강저(五結金剛杵)이다. 존형은 백황색(白黃色)으로 왼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 가슴에 대고 있고 오른손은 오른쪽 가슴에 대고 삼고저(三結杵)를 들고 붉은색 연화적연화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내오고인(內五結印)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 바자라당 센다마카로사타 홀'이다. '널리 금강부족(金剛部族)에게 귀의합니다. 위맹(威猛)하시고 대분노(大忿怒)인 자여! 홀!'의 뜻이다.



발생금강부보살

발생금강부보살(發生金剛部菩薩)

발생금강부보살은 금강수원 중에서 제1의 보살이다. 금강부의 제존을 금강부원 중에 발생시키는 것을 주관하는 보살이다.

밀호는 불괴금강(不壞金剛)이다. 부서지지 않는 보살로서 굳세고 강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삼매야행은 독고저(獨結杵)이다.

독고저는 보리심을 상징한다. 존형은 열은 황색으로 정인(定印) 위에 독고저를 세우고, 천의(天衣)를 착용하고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지지인(持地印)이다. 양손을 겹쳐서 바닥 아래로 내린 모양을 한 결인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 바자라당 홀 홀 홀 팟트 팟트 팟트 사바하'이다. '널리 금강부족(金剛部族)에게 귀의합니다. 홀 홀 홀 팟트 팟트 팟트 사바하'이 뜻이다.

(지리정리: 통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마음 공부는 늘 함께 하는 것



법경정사 (사무국장/연구원)

▶ 우리의 마음공부는 자신이 관대함과 자비로움,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연민과 기쁨 그리고 평정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선한 기운으로 충만한지를 점검해봅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관대함을 지닐 때,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어떠한 마혹적인 모습이나 소리, 향기, 맛이나 접촉에 대하여도 그것들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자비심을 지닐 때, 우리는 바깥 대상에 대해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싫고 좋음이 없어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집니다.

▶ 이것을 제대로 인식했을 때 우리는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Karma)을 의도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의도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도토리도 커다란 거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도된 행위는 각각의 업의 결과를 지닐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결과들은 각각의 의도와 연관 지워진 마음의 자질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화냄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은 불선한 마음의 자질들로서, 그것들은 괴로움의 결과를 낳습니다. 관대함과 사랑 그리고 지혜는 선한 자질들로서 행복의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의 법칙, 즉 행위와 그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어떻게 삶이 펼쳐지고 왜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러한 방식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지혜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능케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것은 그 마음이 몸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마주치는 것은 오직 괴로움과 번뇌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과 같게 되어, 먼지가 끼고 엉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먼지를 털고 걸레로 청소를 하듯 내마음을 털고 닦고 광(光)을 내어야 합니다.

마음 공부는 언제하는 것인가.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별도로 시간을 내어 잠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하는 중에도,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나 걸어 갈 때도, 잠들기전에도 잠에서 깨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마음을 스스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 세속의 행복과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복되고 지혜를 더라도, 단지 세속에서의 행복과 지혜일 뿐, 결코 우리를 완전히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그러한 세속의 집착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집착이 없는 차분함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여 단련시키지 않는 이상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로 집착이 없는 가운데 오게 됩니다.

또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집착과 함께 오래동안 이어온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과거의 업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니었으며, 아주 나쁘다고 단정했는데 지나고 보니 정반대였던 경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사일언(一事一言)에 일비일희(一悲一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끊임 없이 우리 스스로를 속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계율을 지키고 형식을 준수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고통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위한 수행은 아닙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 내 마음을 완전히 벗겨놓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았을 때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월초불공은 나 스스로 점검하고 이러한 마음공부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성도하십시오.



진언수행의 길

월초불공이란 매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간 진언수행을 행하는 특별정진불공을 말한다. 대개가 소원성취를 위하여나 재난소멸, 조상이나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불공을 하거나 자기허물을 찾아 지혜를 밝히기 위하여 불공을 한다. 개인의 서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진하는 불공기간이다.

종조님께서는 월초불공에 대해 "가정형편으로 월초불공을 못하는 분은 정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은 꼭 정해야 한다. 매월 월초불공을 하던 사람이 네 번 한다고 함부로 고치면 안된다. 서원당이 가까우면 반드시 서원당에 나

와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다.

7일간 염송정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장은 모두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당체법문으로서 진언행자의 인격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주일간의 월초불공 중에 마장이 들 때에는 육행으로 막아야 한다.

월초불공

육행이란 육바라밀로서 대승보살이 불도를 이루기 위해 닦아나가는 실천덕목이다. 즉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를 이르는 것이 육행이다.

진언행자가 7일 정진 중에 부모 혹은 권속들이 마음에 번뇌와 장애를 일으킬 때 현실과 말로써 대하여 막지 말고 다만 이 육행을 실천하고 회사와 염송으로 막게 되면 무언중에 행이 발라지고 장애도 사라진다.

傳統中國料理 왕중왕손짜장

색다른 메뉴와 맛! 특별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부

특별메뉴: 굴 짬뽕, 옛날짜장, 해삼정식, 청학루정식, 김치볶음밥, 마파밥, 오징어덮밥, 짜면밥

면류: 짜장면, 간짜장, 유슬짜장, 삼선짜장, 유니짜장, 볶음밥, 선볶음밥, 오무라이스, 잡채밥, 사천짜장

국물류: 짬뽕, 우동, 울면, 짬뽕밥, 삼선짬뽕, 삼선우동, 삼선울면, 고추짬뽕, 기스면, 유산슬밥, 잡탕밥, 해삼탕밥

요리부

고기류: 탕수육, 사천탕수육, 난자완스, 쇠고기라조육, 닭볶음탕, 양념치킨,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볶음탕

냉채류: 해파리냉채, 2가지냉채, 3가지냉채, 4가지냉채, 부추잡채, 고추잡채, (피망과 새우볶음) 당면잡채, 오향장육, 송이해삼, 전가복자, 은기산정수

탕류: 간소새우, 간풍새우, 통새우튀김, 새우튀김, 계란탕, 삼선탕, 새우튀김

대표자: 이해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충남과학고 맞은편
041)854-0747

총지법문

<기획연재>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2>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흥종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계(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법을 쓰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누구든지 연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체력개발에 그 방법이 잘못되면 불행을 초래하듯이(예:입학체력장 시험에 심장마비 등)정신력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층 더 위험이 수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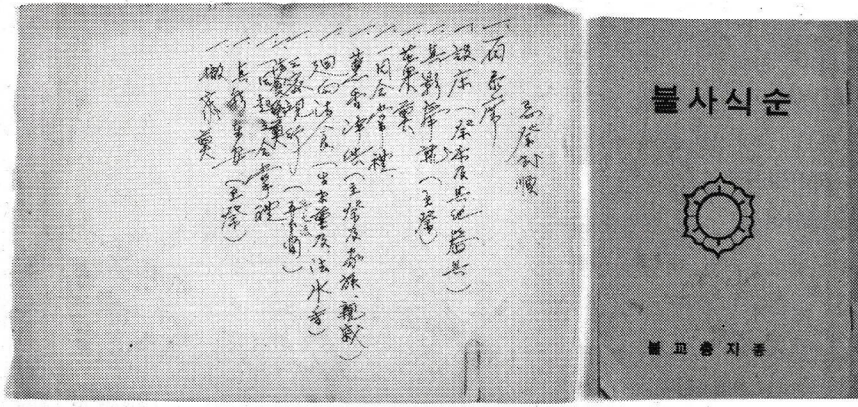
밀교(密敎)의 근본성정인 대비로차나 상불신변가지경(大悲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 대일경(大日經) 밀인품(密印品)에는 월삼매야(越三昧耶)가 엄중(嚴重)하게 금지(禁止)되어 있다.

삼매야(三昧耶)라함은 산스크리트어의 사마야의 음사(音寫)로서 이 원어(原語)는 정칙(正則), 약속(約束), 규정(規定), 규율(規律)이라는 뜻으로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국가의 법률도 모두 "사마야"지만 여기서는 불타(佛陀)의 서원(誓願)을 말한다.

밀교(密敎)의 규정(規定)에 어긋나는 무자격자에 비법(秘法)을 누설(漏洩)하면 "사마야"에 위배되어 월삼매야(越三昧耶)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법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열기(劣機)가 법(法)을 들고 감당하지 못하면 당사(當者)의 신체적 파멸은 물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미혹(迷惑)을 끼쳐서 법(法)을 비방하기 때문이다.(예:방불(訪佛) 수고(受苦)와 같은 예)

과제의 사기시(事記詩)의 일례를 들면 "마술(魔術) 쓰는 제자(弟子)"라는 것이 있다.

어느 날 미술사가 집에 없는 사이에 제자가 미술을 사용하여 빗자루에 물을 길러오라고 명했다. 빗자루는 냇가에 물을 길러오기 시작하여 물이 통에 차는데 그만하라는 주문을 몰라서 중지 시키지 못하고 빗자루는 자꾸 물을 길러왔다. 제자는 다급하여 도끼로 빗자루를 두 토막을 내었으나 빗자루는 두 개가 되어



정신력개발은 선량한 바탕위에 개발이 되어야 한다

법신불과 제불보살의 만다라와 결연한 자기본존을 믿어야

물을 배로 길러오니 집은 홍수가 졌다. 제자가 비명을 지를 때 미술사가 돌아와서 중지시켰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원자력을 개발하여 그 이용에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는 많은 인간을 파멸에 빠뜨렸다.

정신력개발의 가능성은 무한하나 선량(善良)한 바탕위에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자타(自他)가 모두 손실(損失)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밀교는 항상 오대서원(五大誓願)을 가지고(佛頂普勝陀羅尼念誦儀軌所載五大誓願)수행(修行)하게 된다.

5. 밀교신앙(密敎信仰)은 한가지로 전일(專一) 해야하고 삼보(三寶)(불(佛), 법(法) 아사리(阿闍梨)를 비방(誹謗)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교의 신앙은 대체로 대일신앙(大日信仰), 관음신앙(觀音信仰), 약사신앙(藥師信仰),地藏신앙(地藏信仰), 부동신앙(不動信仰)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밀교에

입문하여 어느 정도 수행이 궤도(軌道)에 오르면 결연관정(結緣灌頂)이라는 의식으로 자기 신앙대상인 불보살(佛菩薩)과 인연을 맺는 것이다. 또 옳은 삼밀(三密)과 옳은 의계(儀軌)의 밀교를 선택하여 믿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교법(敎法)의 우열(優劣)을 알고 가려서 믿어야 하며 법신불(法身佛)과 제불(諸佛)보살의 만다라를 믿고 결연(結緣)한 자기본존(自己本尊)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을 상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스승과 교도는 인간이 이상 때로는 과오(過誤)도 있고 의견대립도 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감정(感情)이나 증오(憎惡)로 변하여 신앙(信仰)과 혼동(混同)하고 관련지어서 불(佛)과 법(法)을 비방(誹謗)하고 화(禍)를 입게 되기 때문에 믿음과 시비(是非) 또는 본존과 인간을 혼동하지 말고 별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스승과 마음이 다르다고 교도끼리 감정으로 숭고(崇高)한 자기신

앙을 그만 버리고 퇴전(退轉)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고 또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지금까지 닦아온 공덕(功德)을 헌신적처럼 버리는 것을 흔히 본다.

자기의 신앙이 상대자의 시비(是非)에 따라 좌우되어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곧 자기의 운명(命運)과 이해(利害)를 상대자에게 맡기는 것이 된다. 즉 상대방에게 이미 패배했다는 것이 된다. 상대방이 옳으면 내가 공연히 과오(過誤)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이라도 그로 인해

않는가. 한쪽만이 존재할 수는 없다. 지구도 공전하면서 자전하지 않는가. 불(佛)에 귀명(歸命)한다는 것은 이 정신적인 생명을 부처님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6.밀교(密敎)의 삼륜신(三輪身) 불교는 대별(大別)해서 불(佛), 보살(菩薩), 명왕(明王)의 세 가지다. 그런데 밀교는 현교와 달라서 문자불(文字佛)인 법자(梵字)를 관(觀)하고 진언(眞言)을 염송(念誦)하며 삼밀관행(三密觀行)을 주(主)로하는 진실법이기 때문에 특히 이 명왕(明王)의 활동이 현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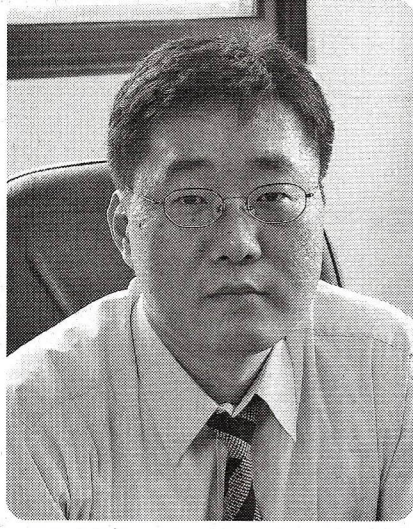
삼륜신의 용어는 자성륜신(自性輪身)과 정법륜신(正法輪身)과 교령륜신(敎令輪身)을 말한 것인데 이 자성신(自性身)은 불위(佛位)이므로 자비이덕(慈悲二德)을 갖추었고, 정법신(正法身)은 보살위(菩薩位)이므로 자비(慈悲)로써 섭수(攝授)하며, 교령신(敎令身)은 명왕위(明王位)이므로 지혜(智慧)로써 절복(折伏)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불(佛), 법(法), 승(僧)을 비방하고 교란을 해(害)하거나 강강(強剛)한 제도(制度)되기 어려운 중생이 있다면 이 교령신(敎令身)이 발동하여 항복을 받는 것이다. 원래 명왕(明王)은 불법(佛法)의 수호신(守護神)이기 때문이다.

여기 삼보(三寶)를 해(害)하면 안되는 전설 몇 가지를 보면 신라시대 말경에 밀교수행승인 청(淸)대사가 길에서 청어를 밟아 신고 가는 마부를 만났다.

대사는 마부에게 청어(靑魚) 한 마리를 달라고 했으나 마부는 거절했다. 그러자 몇 걸음 가다가 말이 걸음을 멈추고 가지 못했다. 발 자국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부는 느낀바 있어서 대사에게 청어를 주었다. 대사는 그 청어를 바다에 방생(放生)하자 죽었던 청어가 모두 살아서 꼬리를 치며 갔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총학연구원)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황발작 증상이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흔한 발작증상은 숨이 막히는 듯 하며, 어지럽고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뛰거나 손발이 떨리고 땀이 나며,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고, 판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등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또는 '미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엄습하게 된다.

공황장애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오진하기 쉬운 질환의 하나이며, 특히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심치어는 정신분열병으로까지 오진될 수 있다.

미주리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

르면 심장발작 증상을 호소하면서 심장 질환 전문의를 찾았을 환자의 59%가 실제로는 공황장애에 환자였다고 한다. 공황장애는 환자의 증상을 근거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

아직까지 공황장애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없고, 다만 젓산염(sodium lactate)이라는 물질을 정맥주사할 경우 정상인들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지만 공황장애 환자들 가운데 3/4 정도는 공황발작 때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5%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할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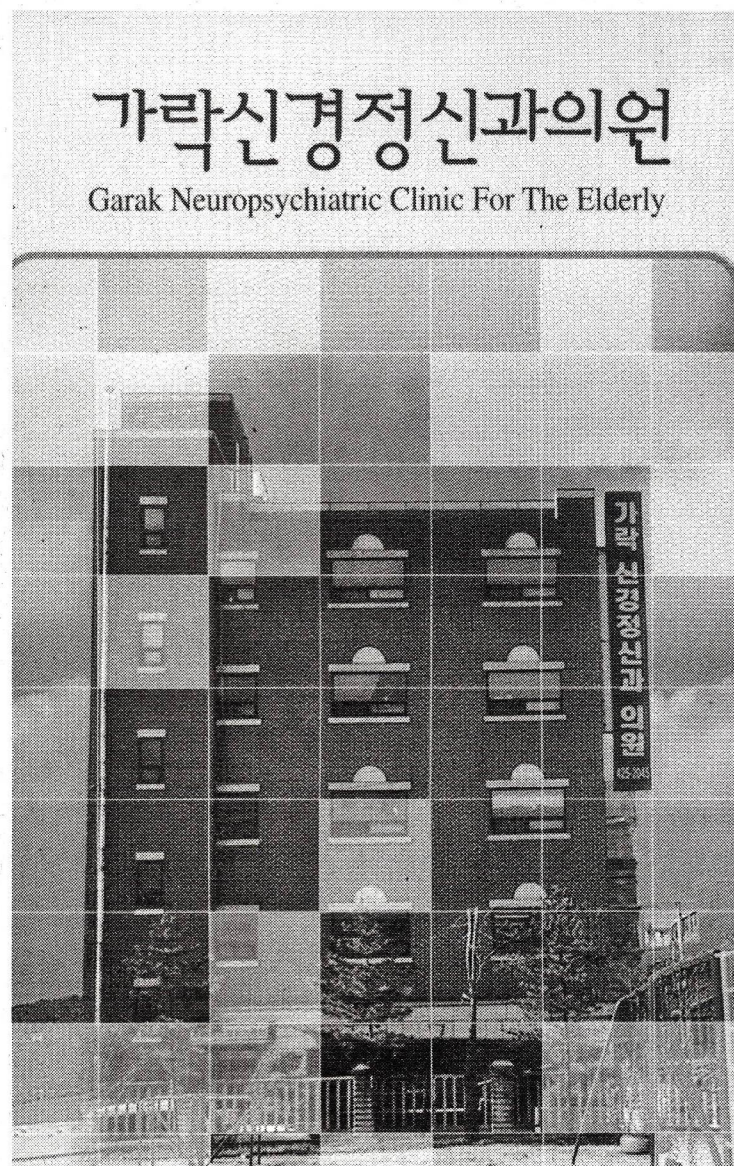
여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황장애는 치료, 그것도 완치가 얼마든지 가능한 병이다. 공황발작이 처음 시작될 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환자를 약물치료만으로도 쉽게 완치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면 공황발작은 늦어도 2-4주 후면 현저히 없어지지만, 약을 끊은 후에도 증상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약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한가지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만약 환자가 임의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습관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벼운 불안발작이 계속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공황발작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공황발작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환자가 사소한 자극이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에 노출될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발작인 경우가 많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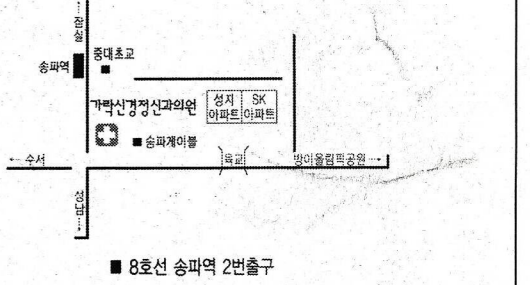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풍경소리

만월(滿月)로 계시는 부처님

달이 이곳에서 넘어가면 사람들은 달이 졌다고 말하고, 달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면 달이 뜬다고 말한다. 그러나 달은 항상 주(住)하여 출몰함이 없다. 부처도 달과 같아서 항상 주하여 생멸이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생멸을 보이시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달을 볼 때에 초승달보다 보름달을 찾고 이르고 보름이 지난 하순달을 이저러겠다고 이른다. 그러나 달은 항상 차서 만월(滿月)로 있는지라 더하는 일도 없고 감하는 일도 없다.

부처도 또한 그것과 같아서 항상 주하여 생멸이 없건마는 다만 사람들의 보는 데 따라서 생멸이 있을 뿐이다.

달은 모든 곳에 나타난다. 읍에든지, 촌에든지, 산에든지, 내에든지, 못에든지, 나무 잎사귀의 이슬에까지 나타난다.

또 백리와 천리를 갈지라도 달은 항상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서 달의 성품은 다른 때가 없건마는 달을 보는 사람은 달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된다. 부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의 사람들에 따라서 한없는 인연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처는 항상 그대로 계시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믿음은 손과 같다

믿음은 손과 같다고 한다. 사람에겐 손이 있어야 보물의 산에 들어갔어도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바로 그와 같이 불법의 경지, 깨달음의 길, 선정이라는 보물의 산에 들어가 자유롭게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체에 손이 없는 것과 같고, 손이 없으면 보물의 산에 들어가더라도 아무 것도 채취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불법

의 산에 들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생존

숲속의 연못에 한 마리의 커다란 물뱀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두꺼비와 거북이가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그 뒤 못의 물이 다 말라 물뱀은 배고픔이 심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자, 이를 호소하여 알릴 곳을 찾았다.

그때 거북을 사자(使者)로 보내어 두꺼비를 불러들였다. 두꺼비는 거북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 돌려보냈다.

『누구나 빈궁함을 당하면 본래의 의의는 잘 생각지 않고 자신의 위기 모면만 생각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내가 한 말을 뱀에게 전하여라. 두꺼비는 끝까지 네 곁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빨리 가면 하루!

어느 날 아침, 마차를 타고 험한 길을 뻗었던 속도로 달려온 여행자가 마차를 멈추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다음 마을까지는 몇 시간이 걸릴까?』 『천천히 가면 네다섯 시간, 빨리 가면 하루!』 엉뚱한 대답에 화가 난 여행자는 전보다 더 속력을 내어 달렸다.

그러자, 도중에서 그만 차바퀴의 굴대가 부러지고 말았다.

이를 수리하느라고 늦어져 다음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다. 앞서 말한 대로 꼬박 하루가 걸린 셈이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양심부재, 인간부재를 낳아 그 속에 살고 있으며 마침내 중심을 잃어 정신의 굴대가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이다.

월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밀요 ~반야심경편 제 37화~

글:그림/정수일



이달의 명상

화합하려면 보살심을 가져야 한다. 보살심이란 자비하고 자기를 낮추고 공경할 줄 알고 남에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다.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공경하라 하셨다. 내가 남을 공경할 때 나도 존경을 받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살심, 자비, 용서로 화합을

사람은 자비해야 한다. 아니 자비가 똑똑 흘러야 한다. 남을 사랑하고 가없이 여길 줄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남에게 동정심을 갖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비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거룩한 것이며, 허다한 죄와 어리석음을 감싸주고 덮어 주는 것이다. 자비는 무한히 용서하고 삶의 진정한 보람을 주는 것으로 어떤 재시보다도 더 크다. 그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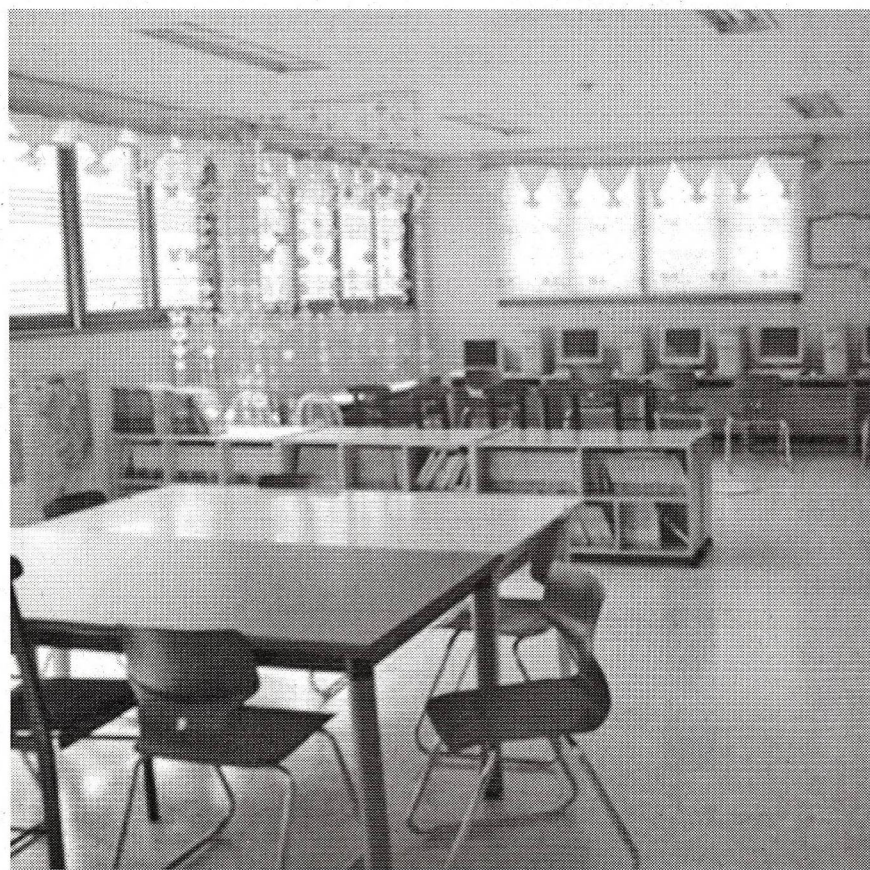
여 자비는 고결의 진정한 상징이다.

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따지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드물듯이 누구나 허물이 있고 어리석은 점이 있게 마련이다. 가급적 남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의 잘못만 보아야 한다. 만약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얼른 용서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용서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고 훗날 크게 용서 받는다. 용서하는 것은 복수하는 복수하는 것보다 낫고, 맺힌 것을 푸는 열쇠와 같아서 그 힘은 무한히 크다. 이런 어질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 너와 나를 떠난 우리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나 개인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과 투쟁을 스스로 참회하고, 서로 서로 용서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화합된 국민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고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 돌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3시~4시 : 태권도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주실 뜻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예 : 010-3913-6352, 이혜숙 : 010-4737-9321

밀교수행의 원리

법계의 상징인 오륜보탑(五輪寶塔)과 밀교의 존상(尊像)

1. 법계의 상징인 오륜보탑

일체만유의 구성요소인 육대, 곧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식(識)은 만유를 구성하는 물질적·정신적인 요소들이다. 이런 요소들로 구성된 일체사물은 우주에 변해하는 실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반어경류에서는 이것을 공으로서 파악하여 궁정도 부정도 아닌 중도로서 설명한다.

그러나 일체의 법성을 이는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경지에서는 일체의 존재의 구성요소는 그것들이 모두 대립을 초월하여 서로 조화하고 일체의 존재를 포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일경』에서는 오대를 일체지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a·va·ra·ha·kha의 다섯 종자로써 지·수·화·풍·공의 오대를 상징하여 이 다섯 글자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네 가지 마장을 항복시키고 정각을 얻으신 그 때의 심경이라고 파악한다.

밀교에서는 지·수·화·풍·공을 다시 운계(輪界)로 보아서 지륜·수륜·화륜·풍륜·공륜의 오륜(五輪)으로 상징하고, 다시 여기에 특수한 형상을 부여하여 이것을 방(方)·원(圓)·삼각(三角)·반월(半月)·공점(空點) 그대로 본 것이다. 공점을 밀교에서는 단원으로 구체화했다.

이렇게 색상과 형태로서 구성된 오륜은 법신인 대일여래의 깨달음의 경지를 상징하는 표시이므로 운(輪)은 만다라의 뜻도 된다. 그러므로 오륜은 운원구축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체험을 가리키는 것

이 된다. 이러한 원리로서 법계의 종자인 Vam자를 구체화한 보탑과 오륜·오탑이 있게 되었는데 전자는 금강계대일여래를 상징하는 삼매야형으로 삼고, 후자는 태장계의 대일여래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오륜보탑은 오대에 따른 종자와 색상·형태로서 법계와 오지를 나타내는 밀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깨달은 자의 활동을 상징한 존상(尊像)

진리를 깨달은 자는 신·구·의를 정화하여 진리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활동하는 삶을 가진다. 이것을 상징한 것이 이른바 불·보살이요, 여러 천부(千部)의 존격(尊格)이다.

밀교의 존격은 수도 없이 많은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존격이 등장하는 것은 수많은 중생을 그들의 근기에 맞게 제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가장 친근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을 크게 나누면 비로자나부처님, 즉 대일여래를 정점으로 하여 여러 불·보살·명왕·천 등으로 나누어진다. 즉 만다라 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일여래 등 오불(五佛)을 중심으로 하고, 밀교만의 독특한 보살이라고 하는 금강살타를 비롯하여 여러 보살들이 등장하며, 부동명왕을 대표로 하는 명왕들, 다시 금강계 삼십이존 등이 있으며, 이외에 대승불교에서부터 받아들여졌던 존격인 관음·문

수·보현·지장·허공장보살 등도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천부의 대축전·비사문전·십이천 등 힌두교로부터 받아들여진 존격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성격을 달리하는 존상들이 한곳에 모여서 조화로운 법계의 모

또한 만다라의 각 존격들의 활동이 그대로 밀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밀교에서는 이들 존격의 몸의 색깔이나 몸의 빛, 또는 세 얼굴, 또는 네 얼굴, 네 팔, 여섯 팔, 내지 천 개의 팔과 천 개의 눈 등 그 모습들이 일반 인간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부처의 깨침에 의한 활동양식이 각기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존격의 색신(色身)이 청·황·적·백·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상징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대일경』계통의 의례에서는 청색은 허공을, 황색은 황금색으로서 금강산을 나타내고, 적색은 지화(智火)의 색으로서 맹렬히 타올라 장에를 제거하는 것을 나타내고, 백색은 결백 정정한 색으로서 자비정정을 나타내고, 흑색은 태풍의 빛이라고 하여 무서운 위력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금강정경』계통에서는 청색은 활동을, 황색은 증의를, 적색은 애열대비를, 백색은 사성정정을, 흑색은 항복시키는 빛이라고 보고 있다. 이 오색을 오륜에 배당하면 청은 무량수불, 황은 개부화왕불, 적은 보당불, 백은 대일여래, 흑은 천고뢰음불에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강정경』에서는 청은 아축여래, 황은 보생여래, 적은 무량수여래, 백은 대일여래, 흑은 불공성취여래를 상징하여 배당한다.

또한 이들 존상의 몸에 광륜이나 광염이나 화염을 더한다. 이것은 이 존상이

보통 중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광륜은 중생을 섭취하는 대비의 자광을 나타내고, 화염은 미혹을 끊고 진리를 깨달은 해광을 상징하며, 특히 부동명왕이나 항삼세명왕과 같은 경우는 악을 없애고 적을 항복시키는 분노와 용맹의 성격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존상의 몸에서도 눈이 셋인 애염명왕은 이(理)·지(智)·사(事)의 셋이나, 태·금·태금불의 삼덕을 나타내고 있고, 안면의 표정으로도 자비와 진노와 아아의 세 얼굴을 갖기도 한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양면 내지 삼면 또는 27면등이 있고, 또한 손이나 팔도 넷, 여섯, 내지 108, 천부 등의 존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존상 가운데서 밀교의 가장 대표적인 존상은 대일여래이다.

대일여래의 본명은 대비로자나여래이다. 이 부처님은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로 나타나, 본격적으로 구상화하여 신앙의 본존이 된 것은 『대일경』과 『금강정경』에서부터이다. 단지 도상적으로 청색은 활동을, 황색은 증의를, 적색은 애열대비를, 백색은 사성정정을, 흑색은 항복시키는 빛이라고 보고 있다. 이 오색을 오륜에 배당하면 청은 무량수불, 황은 개부화왕불, 적은 보당불, 백은 대일여래, 흑은 천고뢰음불에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강정경』에서는 청은 아축여래, 황은 보생여래, 적은 무량수여래, 백은 대일여래, 흑은 불공성취여래를 상징하여 배당한다.

또한 이들 존상의 몸에 광륜이나 광염이나 화염을 더한다. 이것은 이 존상이

나는 대일여래는 보신불과 같은 수용신의 관념이 짙으므로, 같은 법신불이면서 현교의 법신불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만다라에 나타난 대일여래를 보면, 머리가 긴 장발 위에 보관을 쓰고, 몸에는 목걸이·가락지·팔찌 등 장신구를 하고 있어 마치 화려한 왕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만다라에는 이러한 대일여래를 중심 존격으로 하여 오륜이 있다.

곧 태장계의 오륜은 대일여래·보당여래·개부화왕여래·무량수여래·천고뢰음여래가 각각 중앙·동·남·서·북방에 배치된다. 금강계만다라에서는 이와 달리 대일여래·아축여래·보생여래·아미타여래·불공성취여래가 각각 중앙·동·남·서·북에 배치되어, 각각 법계체성지·대원경지·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두 만다라의 오륜 중에서 태장계의 오륜이 보다 오래된 것이고, 금강계 오륜이 뒤에 확립되어 체계를 갖췄고 있다. 그리하여 이 두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인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완전한 세계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밀교에서는 이처럼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하는 만다라의 세계를 통하여 그 하나 하나의 상징성을 최대한 확대하여 법계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다라를 통한 이러한 상징성이야말로 밀교의 핵심이며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두 만다라의 오륜 중에서 태장계의 오륜이 보다 오래된 것이고, 금강계 오륜이 뒤에 확립되어 체계를 갖췄고 있다. 그리하여 이 두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인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완전한 세계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밀교에서는 이처럼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하는 만다라의 세계를 통하여 그 하나 하나의 상징성을 최대한 확대하여 법계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다라를 통한 이러한 상징성이야말로 밀교의 핵심이며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정보 다이제스트

스님도 여초, 조계종 정식 승려 비구니가 더 많아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은 총1만2,674명이며 이 중 예비 스님 등을 제외한 정식 스님은 9,319명(74%)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스님 가운데는 비구가 4,646명, 비구니가 4,673명으로 비구니가 더 많았다. 사미 1,814명, 사미니 1,398명 등 예비스님은 3,212명(25%)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5세~49세가 가장 많았고, 노후 복지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스님은 전체 스님의 9%인 1,168명이었다. 조계종이 최근 공개한 종단 통계자료집(2004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조계종은 총2,199개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사찰사원이 60%(1,329명)를 차지하고 있다. 사찰 한 곳당 5~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5000~6000개로 추정되는 미등록 사찰 사암 등을 포함하면 사찰 한 곳당 거주 스님 수는 2, 3명으로 줄어든다. 공철(공제) 870개중 전통사찰은 619개, 관공로 사찰은 72개, 해외사찰은 24개다. 지역별로 경북에 가장 많았으며, 대전과 광주에 가장 적었다.

중국 스님들 '도전사찰경영 MBA'

중국 절에 현대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상하이에 있는 100년 전통의 선종사찰 옥불사 승려 18명이 경영과 상품 판촉 등을 가르치는 '불교사찰 경영학 석사(MBA)' 과정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자오통대학이 개설한 이 과정은 사찰 경영과 종교상품 판촉, 회계와 경제학, 기업 전략 등을 가르친다. 옥불사의 한 관계자는 "속세가 어떤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상하이 시내에서 가까운 옥불사는 희귀한 '옥불'이 모셔져 있어 불자 등 중국의 많은 사람으로 항상 붐비는 절이다. 중국에선 옥불사처럼 참선과 경영 모두에 힘을 쏟는 절을 가리켜 '선상(禪商)일치 사찰'이라고 부른다.

중국 사찰의 주요 수입원은 향전(香錢)이다. 인민일보의 인터넷 신문인 인민망에 따르면 후난성 형산의 한 사찰에서 새해 첫 아침에 가장 먼저 울리는 향전의 가격은 무려 10만 위안(약 1,300만원)에 달한다.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가격이지만 현지의 일부 관리들은 첫 향을 울리기 위해 줄을 선다고 인민망은 전했다. 허난성 소림사의 상업화도 여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찰 주변에 늘어선 83개의 무술학교는 공개적인 상업장소가 돼 버렸다. 4만명이나 되는 학생들로 늘 북적여 "소림사는 이미 돈 버는 기계로 변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시에 있는 한 사찰은 최근 고층탑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다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국 중, 고이상 학력자 비율OECD 1위

1970년대 출생자들 가운데 중,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해마다 펴내는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26~35세 연령대 중 97%가 중, 고교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OECD 30개국 중 1위였다. 노르웨이와 95%로 2위였고, 일본, 슬로바키아 등이 94%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9위에 그쳤고 포르투갈이 37%로 최하위였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공교육비 지출 면에서는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학생 1인당 1만1천1백52달러, 1만1천3백34달러를 써서 1·2위를 차지했다. 미국, 스위스는 교사들의 봉급 수준이 유난히 높았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다. 한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등은 비교적 적은 공교육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40대 출산 22년만에 최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아이수는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령자 출산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아이 수는 5,787명으로 1982년(7,385명) 이후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아이는 80년대 해도 2만 2천명선이었으나 출산기피 현상과 함께 83년에는 5,461명으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 89년에는 2,122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아이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해 40대 이상 산모 중 40대 초반(40~44세)은 5,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후반(45~49세)은 373명, 50세 이상 초고령 산모도 26명이나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 산모의 증가는 결혼 연령이 매년 높아지면서 출산 시기가 늦춰지는 데다 일부 계층의 '늦둥이 출산 붐'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는 23만18천5백73명으로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47만16천52명의 절반수준(50.1%)에 그쳤다. 10년전인 94년의 경우 20대 산모가 낳은 아이는 53만4천9백99명으로 전체 출생아(72만4천345명)의 73.9%를 차지했다.

'39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대한민국'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00~2004년 자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우리나라의 자살 수는 1만 3,293명이고 이는 39분마다 1명씩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연령별 인구대비 자살률은 61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4,220명으로 전체 61세이상 노인 인구(572만 9,649명) 가운데 0.074%의 자살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50대, 40대가 뒤를 이었다. 또 연령별 전체 사망자 대비 자살률의 경우, 20대가 전체 사망자 4,185명 가운데 1,161명(27.7%)로 나타나 20대의 사망원인 중 자살로 인한 사망 건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망자 대비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울산지역이 289명으로 전체 사망자(3,941명)가운데 자살자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고 서울, 경기, 강원도가 각각 6.6%, 6.4%, 6.4%로 전국 평균인 5.4%를 상회했다.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자원봉사사업, 지역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은빛축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노인휴양시설 건립 추진: 아름다운 노후생활,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남골당 건립 추진
자원봉사사업 및 후원회 사업: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7668610,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기획특집 관성사, 백월사 현공불사 이모저모

밀교의 정수 진언공덕의 요람, 즉신성불의 대도



관성사 사원연혁 관성사는 총기 1년 9월 13일 심인각보살님이 사택을 무상보시하여 육합서원당으로 포교활동을 하다가 총기 9년 8월 13일 종로구 행촌동 건물을 매입하여 관성사로 명명, 종로구 행촌동 주변 대지를 매입, 총기 32년 10월 17일 지진불사를 봉행 후 대지면적 137.49평(454.4㎡) 연면적 169평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구조 3층 건축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

백월사 사원연혁 백월사는 총기5년 6월 대전시 도마동1구(區) 247블럭 1호, 길분례보살 소유주택 한 동을 임차하여 법장서원당으로 개설하였고, 총기9년 10월 법장서원당으로 사용하던 사원을 매수(買受)하여 사원명을 백월사로 개칭하였다. 총기33년 기존 백월사가 도마시장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도마동에 대지 103평, 연면적 226평의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여 서원당으로 개설하였다.

중령 법어

관성사 현공불사



효강 중령

부처님의 법문이 팔만사천이라고 하나,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허공의 말이니, 경구한 구절 내 마음 속 깊이 있으면 팔만사천 법문이 다 내 것입니다.

법문이 좋다 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또한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요, 닦고, 닦으며 실천하는 가운데 나의 불성은 절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실천은 우리 일상에 있음이니, 신·구·의로 짓는 죄업을 금하는 것이요, 양심하여 이간하지 않는 것이며, 악구하여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요, 꾸며서 남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며, 망어로 남을 여지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함께 내가 모든 중생이며, 모든 중생이 바로 나임을 깊이 인식하는 동체대비심의 보살정신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 일입다(一入多) 다입일(多入一)의 대승적 실천을 말한다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와 "너"라는 분별심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실천했다 해도 그것은 거짓과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한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실천! 그 모두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하는 것에 귀착됩니다. 내 마음 닦는 데 정진한다면 나의 실천은 저절로 되는 것이며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에 이르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안락과 지혜를 얻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보살도에 들어 원망정정한 과보를 속히 증득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자대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보살도 실천에 일심 정진합시다. 성도합시다

백월사 현공불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뜻은, 일체중생을 고해로부터 해탈시키고자 함이요, 중생들에게 절제 드리워진 무명(無明)의 그늘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미혹과 고난, 다툼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시현을 통해 자아실현의 길을 열어 주셨고, 모든 중생들에게 정각(正覺)의 근본인 불성(佛性)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으며,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는 자기반성과 깊은 성찰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정 종조님께서도 이 땅에 오묘하고 신비스런 밀법을 널리 펼치시고 바른 정법을 알리시고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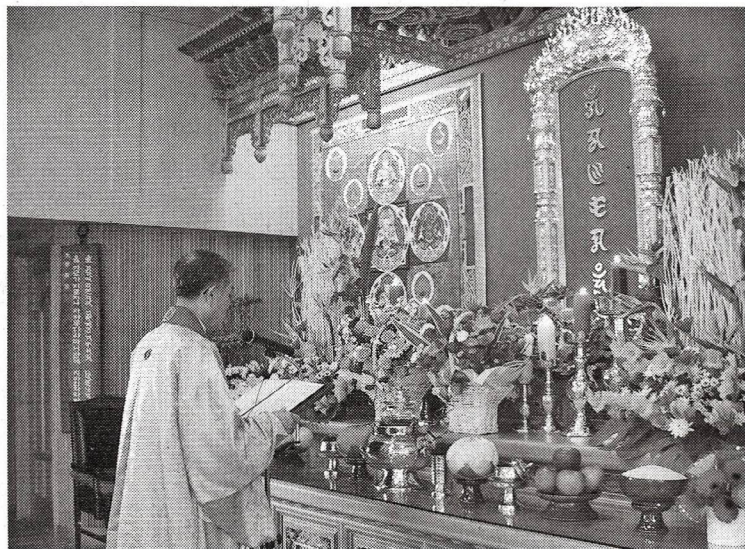
원정 종조님의 넓고 크신 해안력과 가피력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 백월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정 종조님의 크나큰 서원은 고통받은 많은 중생들이 음미반매혹의 진언속에서 해탈을 이루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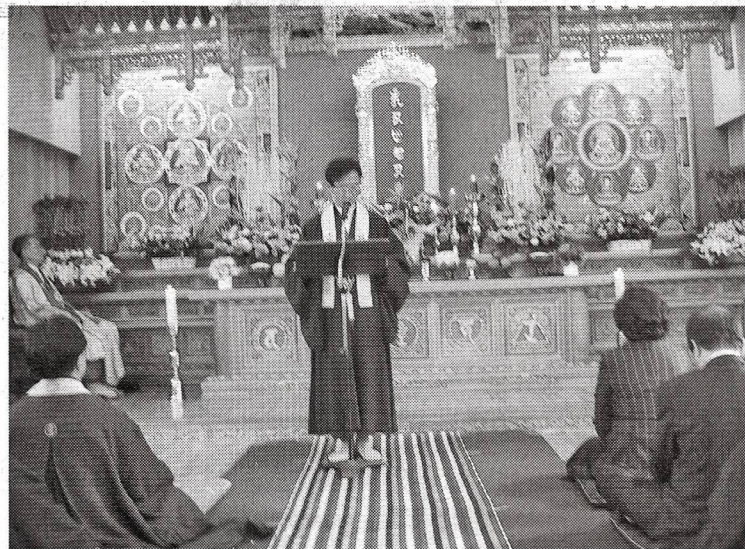
이러한 종조님의 유훈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 승단과 교도들은 중생교화를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하여 사방세계 곳곳마다 총지종 도량을 건립하고, 음미반매혹 진언의 묘미와 진리를 깨쳐 중생들의 고통을 해탈하여 밀엄국토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신비로자나 부처님과 원정 종조님의 위신력과 가지력이 충만한 가운데 화합과 이해, 사랑과 보시로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리가 되고, 내 허물을 깊이 참회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거듭 태어나서 총지종의 발전과 중생교화를 위해 위없는 정진력과 수행력을 겸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백월사 현공불사를 통해 원정 종조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유서깊고 불심이 높은 이곳 한밭지역의 모든 중생들이 이 밀법의 근본도량 백월사의 서원당을 가득채워 진언밀교의 진리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살도 실천을 위해 일심 정진합시다. 성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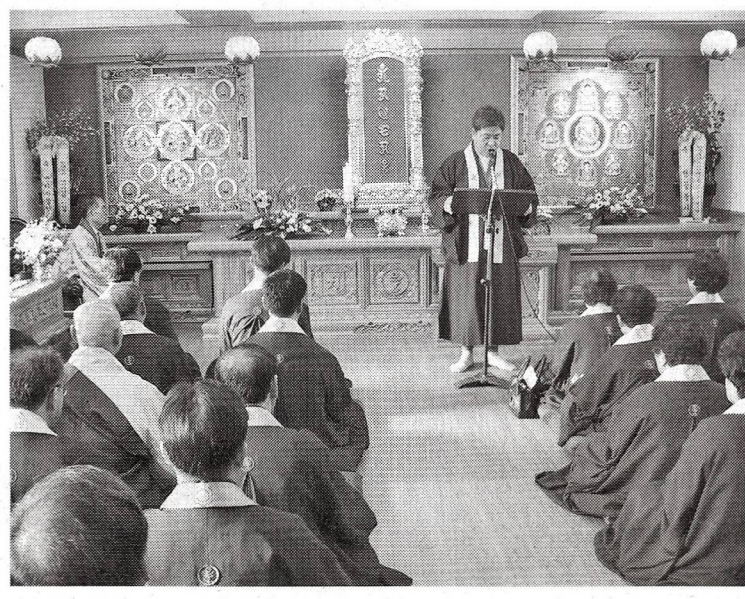
효강 중령예하 현공사



우승 통리원장 인사말



관성사 해정주교 인사말



백월사 법우주교 인사말

통리원장 인사말

관성사 현공불사



우승 통리원장

가을의 따사로운 햇살이 저 높은 하늘에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무릇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을 해탈시키고,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달의 풍요로움처럼 우리들 마음에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가운데 효강 중령님과 여러 스승님, 교도분들을 모시고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관성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관성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게 되기까지 관성사 주교님과 스승님을 비롯하여 관성사 신정회 회장님과 교도분들은 그동안 많은 고통과 고난을 인욕하셨으며, 관성사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용맹정진하셨습니다.

이러한 용맹정진과 지극한 발원이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부처님의 전법도량을 내려주소서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부처님의 지혜만큼 위신력이 있는 것이 없고 부처님의 자비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능력과 자비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많은 자비의 실천을 닦았고 지혜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 부처님의 위신력과 자비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순간에 좋은 일을 할 경우에는 결과가 저절로 좋아지고 이 순간에 좋지 못한 일을 할

경우에는 저절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며,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일으키고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행위 속에서 이미 결과는 저절로 정해지기 때문에 나의 주변 세계를 인정하고, 내가 마주치는 상대와 마음과 증오의 감정을 버리고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닦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하며, "나"를 추켜세우기 전에 "남"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갈대단도 두 개가 서로 의지해야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듯이 나의 이상과 야망, 탐·진·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상대방이 고의 불행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자신도 역시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진리를 체득하여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기에 앞서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감싸 안으며, 서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동체대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오늘의 관성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기까지 고생하신 관성사 주교님과 스승님, 그리고 관성사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왕림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으로 각 가정마다 소원이 성취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백월사 현공불사

가을의 푸른 창공에는 한점의 구름없이 푸르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우주법계의 진리요, 일체의 생명의 근원인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태양이 자비스런 모습으로 사방세계를 평화와 행복으로, 어둠의 무명속에 가려있는 중생들을 수정처럼 맑은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백월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백월사 스승님과 교도들은 허스름하고 초라한 도량에서 겨울이 되면 문뜩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벗삼아가 가며 인욕하고 용맹정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욕과 용맹정진이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는 거룩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궁전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백월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게 되기까지 고생하셨던 백월사 주교와 스승님,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강경에 "여래가 설한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고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으키는 작용에 따라 약한 마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며,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간 마음으로 볼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지금' 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려 볼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 중생들은 어리

석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설계하다가 순간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알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깨치기 위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지혜의 등불은 우연히,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믿는 굳은 신심과 순간 순간의 퇴전함이나 내태함이 없이 지심으로 불공하고 발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등불,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을 체득하고 밝혀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백월사 현공불사를 봉행하기 위해 고생하셨던 백월사 주교와 스승님, 신정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교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성사 현공불사, 추계강공회를 원만히 회향하고 피곤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백월사 현공불사에 동참해 주신 승단의 스승님과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까지 왕림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교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백월사 현공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여 소원성취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교계소식

“종단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할 터”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당선



지관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에 지관스님을 선출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320명은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마련된 투표장에서 투표한 결과,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이룰 새 총무원장으로 지관 스님을 뽑았다. 이날 선거인단은 기호 1번 지관 스님에게 165표를, 기호 2번 정려 스님에게 146표를 안겨줘 19표 차로 지관 스님이 당선됐다.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지관 스님은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5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동국학원 이사, 중앙종회 부의장, 해인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조계종 원로의원, 동국학원 이사, 동국대 명예교수, (사)가산불교문화

연구원 이사장 등으로 활동해왔다. 지관스님은 당선소감에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특정 문종이나 교구의 지지가 아닌 25개 교구와 중앙총회의 고른 지지였던 점은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이 안정되고 한국불교가 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로서 저는 이러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종단 화합과 안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 이념과 통합종단의 정신을 계승하고 1994년 개혁불사의 성과를 이어 받고 있는 우리 종단은 제2의 중흥과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경륜과 원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수행 종풍을 진작하여 위와와 질서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정신을 향도하고 도덕과 가치관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학력 및 수행경력

(학력) 1963. 7. 30 경남대 졸업

- 1969. 8. 30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석사학위수여
1976. 9. 4 동국대 대학원 철학박사학위수여
(수행경력)
1947. 10. 3 해인사에서 자운성우 율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3. 5. 24 통도사에서 자운성우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5. 11. 25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선 역임
1968. 8. 7 동국학원 이사 취임
1970. 11. 25 동국학원 감사 취임
1970. 11. 20 해인사 주지 취임
1972. 7. 20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취임
1973. 1. 25 조계종 총무부장 취임
1980. 8. 7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취임
1980. 8. 11 사회정화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1984. 1. 30 동국대 교육대학원 원장 취임
1986. 1. 16 동국대 11대 총장 취임
1987. 4. 26 문화공보부 문화재위원 취임
1993. 12. 20 해인사 주지 취임

북관대첩비 ‘100년 만의 귀환’ 문화재청, 환국기념 고유제 지내

일제 강탈 때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던 북관대첩비가 고국에 무사히 돌아왔음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를 치렀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단 공동주최로 10월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앞뜰에서 열린 고유제는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에 반출됐던 북관대첩비가 100년만에 귀환했음을 고국산전에 고하는 의식이다. 북관대첩비는 함경북도 길주에서 임진왜란 때 정문부를 대장으로 한 합검도 의병의 전승을 기념해 조선 숙종 34년(1707년)에 세운 승전비다. 고유제 의식을 마친 북관대첩비환수 추진위원회 초산 스님(한일불교복지협회장)은 “북관대첩비를 되찾은 의미는 100년만에 우리민족혼이 돌아온 것”이라며 “순수 민간차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나아가 북한의 도움까지 모두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제를 마친 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북관대첩비가 1905년 일본에 반출된 과정을 담은 일본군 공문서를 공개하며 “일본이 비의 이전을 후손에게 승낙 받았다는 공문까지 만들었을 만큼 치밀하게 북관대첩비 강탈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들었다는 증거”라고 발표했다. 공개된 일본군 공문서는 러일전쟁(1904~1905) 당시 일본군 소장 이케다 마사스케(池田正介)가 일본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후일 조선 초대총독)에게 보낸 편지와 답신으로 된 문서이다. 개석(蓋石, 덮개돌)과 받침대를 망실해 온전하지 못한 북관대첩비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명량대첩비를 응용해 덮개돌과 받침대를 제작, 곧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원래 있던 북한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 낙성식 남북불교 교류확대, 영통사 역사 살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0월 31일 북한 개성에서 남측에서 300명, 북측 및 해외 참가자 200명 등 모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 영통사 낙성식행사를 봉행하였고, 11월 1일에는 개성 영통사 낙성법회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영통사에서 갖기로 하였다. 개성 영통사는 고려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찰로, 인종을 비롯하여 많은 고려의 여러 임금들이 이 사찰을 행차하였고, 고려 임금들

양주 회암사지서 제1회 폐사지 음악회 열려 폐사지의 밤을 밝힌 문화한마당

우리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있으나 사람들에게 외면 받아온 폐사지가 문화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폐사지 사랑과 보존을 위해 열린 ‘제1회 폐사지 투어콘서트’가 10월 16일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렸다. 이번 회암사지 산사음악회는 문화복지연대가 잊혀져 가는 폐사지 보존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함께 ‘1폐사지 1지킴이’ 운동 등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기획한 것. 문화복지연대와 양주사암연합회가 마련한 산사음악회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인근사찰 불자들이 지역주민 3000여명이 모여 ‘폐사지 보존을 서원하는 노래’를 비롯 다양한 선율이 연주되는 문화축제에 함께 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한 창작곡인 ‘회암사 가는 길’을 노래한 국악인 남상일 씨는 “터남은 절에서 노래하기는 처음인데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가해서 역사의 산증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음악회를 지켜본 영산법화사 신도는 “우리나라에 폐사지가 이렇게 많는지 오늘 처음 알게됐다”며 “폐사지 음악회를 통해 더 많이 알려나가고, 부처님 도량답게 지켜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연대 김종업 상임공동대표는 “폐사지 산사음악회는 봄·가을로 1년에 2회 정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리의 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1

오늘도 수많은 법륜과 제도가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탐욕을 치닫고 있는 한은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탐진치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화되지 않고는 어떠한 세간적 노력도 결국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족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학과 기술, 금전과 재화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만족감 밖에는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모르는데 아무리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찾아지지 않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지는 소금물처럼 욕심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사회복지가 가장 잘되어 있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들이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물질 위주, 과학 위주로만 치닫는 지금의 시대아말로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밖으로만 행복을 추구하던 시선을 돌려 나 자신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확실한 인생관을 확립하여 인생의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 서 활기차게 나아간다면 최소한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령 정사

살아온 지난날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확실한 인생관을 지니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정진한다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를 알고 또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의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즐겁습니다. 근심을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은 이웃, 불행한 이웃을 걱정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데서 삶의 기쁨을 얻습니다. 이러한 삶은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방일한 마음을 스스로 금하여 그것을 물리친 자 현자라 하네. 그는 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라 근심도 벗어놓고 안락을 얻어 어리석은 무리를 내려다본다. 마쳐 산 위에서 아래를 보듯.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여 지혜를 얻은 자는 이렇게 모든 근심을 털어버리고 느긋하게 인생을 관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몸은 바빠도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서 몸과 마음이 다 고달픕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낙관적으로만 매사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에 걸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나도 편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는 기껏 남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늘 여유가 배어납니다.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장애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내가 맡고 즐거운 일은 남에게 돌리기 때문에 늘 보람이 있고 매사가 즐겁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불교에서 그 길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인생관을 확립하여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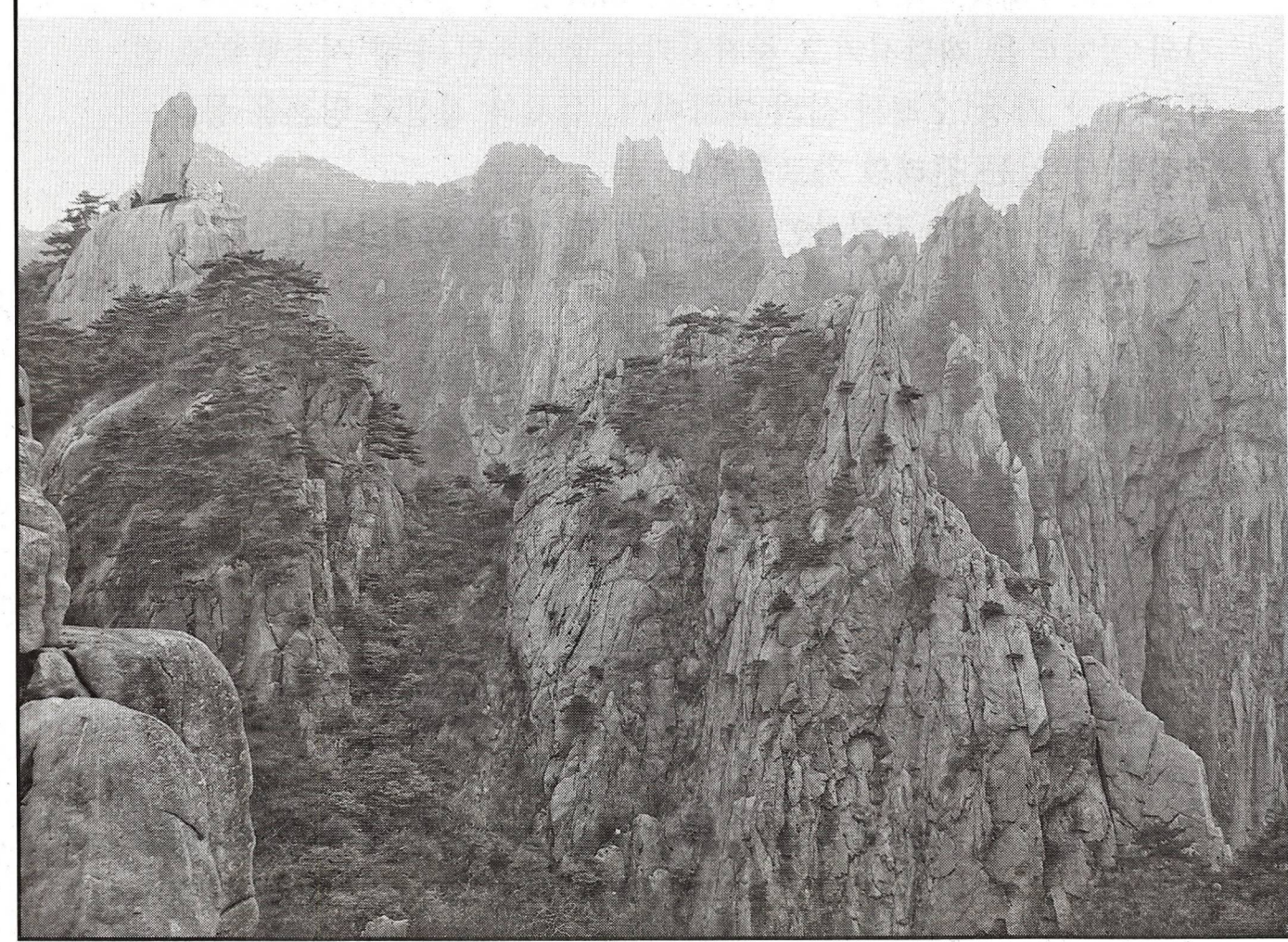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진리의 수레바퀴2

우리가 불교를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은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지금의 생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중국의 항주, 황산, 구화산 4박5일 즐거운 여행을...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최상의 친절. 2005년 8월 ~ 12월(20명 기준)



- 첫째날 - 인천출발, 항주 도착후 영은사관광
둘째날 - 중부 최대호수인 서호(유람선), 항주의 역사문화 정자사, 성황묘, 성황각, 오산, 항주의 용정차 농원견학
셋째날 - 운곡사, 황산의 최고봉인 연화봉, 황산의 절경 광명정,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라 불리는 비래석, 배운석, 사자봉, 청량대, 시신봉 등 황산의 절경 관광
넷째날 - 구화산의 지원사, 육신보전, 화성사, 고배경대, 등 구화산 관광
다섯째날 - 항주출발, 인천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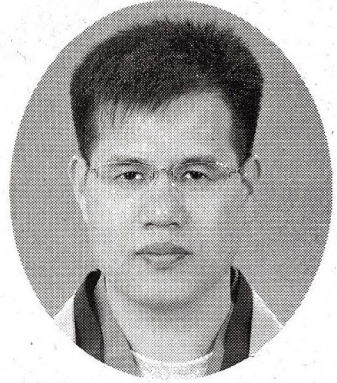
LTC (주)엘티시여행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325
전화 : 02-734-9230 H/P : 011-204-7708

담당 : 함 명 길

아제아제바라아제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을 다녀와서



지정정사 (총지종보사)

한국불교종단협에서 주최하고, 해외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해외포교사와 포교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의 행사는 그 의미를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은 6년 전 미국의 허버트대 출신으로 한국불교에 매료되어 승산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한 무량스님과 현각스님께서 허버트와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문화를 해외에 포교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3박 4일 일정으로 75명의 포교사들을 태운 2대의 버스는 본 행사의 입재식을 병행하기 위해 푸른 초원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을 뒤로한 채 서귀포시의 약천사로 향했다.

약천사에 들어서자마자 3층 구조로 이루어진 웅장하고 거대한 대웅전, 감글나무로 어우러진 주변환경,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을 해탈하듯 앉아있는 가람의 절경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이 우러났다.

약천사(藥泉寺)는 해인스님께서 본격적인 불사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수질이 좋은 약수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 약수를 마시고 기갈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근의 주민들이 약천사 터에 있는 약수를 마시고 병이 낫았다고 하여 약천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특히 경이로운 사실은 현재와 같은 거대한 가람을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해인 스님의 지극한 원력의 힘에 의해 정부나 종단의 지원없이 혼자 힘으로 거대하고 웅장한 불사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입재식이 끝나고 제주시장을 비롯하여 군수, 의원 등과 주민들이 참석하여 제주도의 모든 신들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영산대제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불교의 중심지인 관음사로 향했다.

관음사는 한라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1900년대 비구니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중창되어 지금은 제주 불교 부흥의 근본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봉려관 스님이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을 때 민속신앙을 신봉하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은 스님을 천대하였으며 관음사는 절 터만 있었을 뿐 정각은 하나도 없어 스님은 조그만 대웅전을 짓고 정진에 들어가셨으며 정진이 끝난 후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기 위해 지극한 원력을 간직한 채 모든 고난과 천대를 인욕하여 현재는 제주도 제2호 진통사찰로서 제주도내 사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변모되었다고 한다.

관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감글박물관, 천지연폭포 등을 돌아본 후 다시 여정을 풀기 위해 약천사로 돌아왔다. 밤기운 속에서 불어오는 맑은 공기는 가슴속으로 밀려들고 가슴속에서 영물어진 모든 악한 기운을 빨아내는 듯한 기분, 순수한 아기의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 검은 밤바다의 저 멀리 지평선에서 모든 배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불을 밝히고 있는 오징어잡이 배들의 풍경에 매혹되어 마치 극적이 이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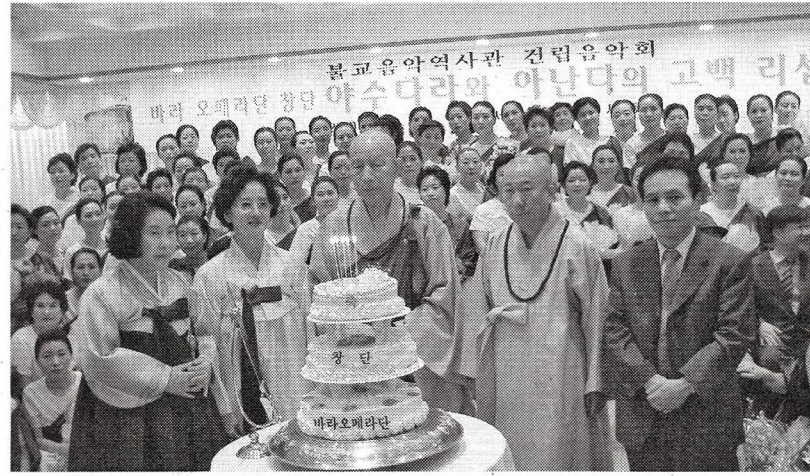
부처님의 세상에서 하루 밤의 여정을 끝낸 후 새벽 일찍 일어나 약천사에서 새벽예불을 드렸다. 아침 일찍 성음민속촌을 들렀는데 제주도 방언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말은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토속적이고, 고풍스런 제주도 방언이 재미있었고 정감을 느끼게 하였다.

행사에는 조계종을 비롯하여 진각종, 총지종, 원불교 4대종단의 포교사들이 참석하였는데 각 종단의 포교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상호간에 해외 포교의 경험담과 방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였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해외 포교사들의 경험담은 인상적이었다. 오로지 부처님의 불법을 포교하기 위해 언어적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황무지인 해외에 진출하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며 의젓한 생활불사를 하고, 신도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거대한 부처님의 궁전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한 포교사의 눈에서는 크롱안고 생을 겪어야 했던 슬픔의 눈물, 중생제도의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을 다녀와서 자신의 내태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약천사나 관음사, 해외에서 포교하고 있는 포교사들의 사례들을 보며 포교라는 것은 '자신이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지극하고 간절한 발원과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의 실천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그 발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것을 배웠다.

교계소식

불교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성황리 공연 "부처님의 일대기 음악으로 잘 그려내"



지난 7월 창단한 불교 오페라단 '바라 오페라단' (단장 이정지)이 10월 14~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단 기념으로 창작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마련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서 성황리에 마쳤다. 총 3회에 걸쳐 열린 이번 오페라에는 전 좌석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불자들의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은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문문 스님)와 전국불교연합합창단(회장 한정아)이 주최하고, 정부기 중앙대교수 겸 삼보불교음악협회 부회장이 작곡한 작품으로 한국적·불교적인 오페라다.

오페라는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서곡과 3막 6장으로 구성돼, 야수다라와 아난다가 고백하는 형식으로 진

행했다. 부처님께서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왕자의 신분에서 버리고 수행의 길을 택해, 소멸된 육체를 버리고 영원한 자유의 몸을 얻어 영원불멸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했다는 내용으로 오페라가 진행됐다. 또한 10월 8일에는 경주 불국사 정운교 백운교 앞 특설무대에서 '우리는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라는 주제로 1000여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불가를 부르는 제5회 전국불교음악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우승 총지종 총리원장과 총지종 대구, 경북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참가하여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의 단원들은 전국불교음악제, 오페라 등에 참가하여 열연을 펼쳐 공연을 한층 고조시켰다.

'불교 환경의제 21' 확정 조계종 내년 상반기 공식 선포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정념)는 10월 27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불교환경의제21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안 대응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불교환경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의제21은 △불교환경기본의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환경대사할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의 5개 분야와 31개 행동목표, 종단 179개, 사찰 133개, 사부대중 110개 등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정념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만간 종단과 환경단체 등으로 '불교환경의제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한국전시 조인 중국불교협과 한국불교종단협 서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회는 지난 10월 17일 북경 광재사에서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및 기타 유물(지하궁 출토)의 한국 전시 조인식을 개최했다.

공식협약서에는 한국측에서 종단협의회 대표 홍과 스님, 불지사리 이운 봉행위원회 대표 장주 스님이, 중국측에서는 중국불교협 대표 학생 스님 등 3개 단체 대표가 '중국불교협회는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에 요청에 따라 중국 불교계와 한국 불교계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우수한 불교 전통을 알리며 한국 불교 신자들의 염원을 만족시키고자, 관련 부서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國務院)의 비준을 얻

어 불지사리의 한국 친견법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불지사리 한국친견법회의 순조로운 진행과 불지사리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중국불교협회는 한국불교협회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본 협약서를 작성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북경 조어대에서 선포식을 열었다.

불지사리 이운 봉행위원회는 11월 10일 중국 법문사에서 이운 법요식을 개최하고 한국으로 이운한 뒤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계사, 잠실 체조경기장,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백스코드에서 불지사리 친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언론인상 공중원·TV부문 '산사의 아침' 등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발표

2005 불교언론인상에 공중원 씨가, TV 부문에 '산사의 아침'이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방송·신문·출판 분야 종사자와 작품에 상을 수여하는 '불교언론문화상' 13번째 수상자와 작품이 선정됐다. 먼저, 2005 불교언론인상은 현 한국불교언론인회장인 공중원 씨가 차지했다. 공중원씨는 불교계 언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다양한 글을 통해 불교를 널리 알렸다.

TV부문상 대상작은 KBS 드라마시트 '산사의 아침'이, 최우수상은 MBC 스페셜 '출가(2부작)'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산사의 아침'은 드라마 형식을 띤 기획 프로그램으로 탄탄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불교적 색채를 비교적 짙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가'는 조계종 사상 처음 열린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화교의 수행 과정을 밀착 취재한 것으로, 참가자들의 모습을 통해 출가의 의미를 잘 되짚어 봤다는 심사평가를 받았다.

출판부문에는 전국 폐사지 답사, 보존관리, 역사조사 등을 담은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탐험'이 결정돼 수상하게 됐다. 이 책은 진각북지재단 사무처장 장용철 씨가 2001년부터 남북한 전국 주요 폐사지를 답사하며, 폐사지 보존의 중요성과 그 속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되짚은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계언론부문에는 신문, 불교라디오, 불교TV 등 총 3 부문에 걸쳐 시상이 열렸다. 신문부문에는 불교신문 편집 차장 조병환 씨가, 불교라디오 부문에는 불교방송국 편성제작팀 아니운서 최은경 씨가, 불교TV 부문에는 불교TV 제작 부국장 신현중 씨가 각각 선정됐다.

'불교언론문화상'은 조계종 총무부가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13번째를 맞아 '보리방송문화상'에서 '불교언론문화상'으로 확대·개편됐다. 수상식은 11월 9일 오후 2시 KBS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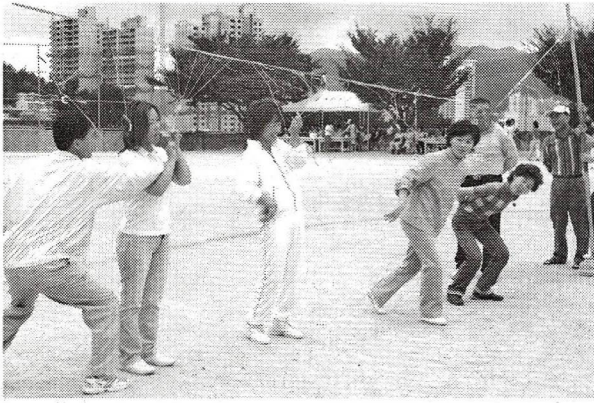
요가는 육체적·정신적·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 대 상 : 일반시민
-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30,000원, 월 \20,000원
정각사 - 월 \20,000원
-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건전한 마음 튼튼한 체력”

총지중 종립 동해중 체육대회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는 지난 10월 7일 본교 운동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동해중은 체육대회를 통해 건전한 마음과 튼튼한 육체를 단련하고 학생들의 운동소질과 능력을 발굴하고 계발하여 급우, 선후배 간의 친목과 단결심을 고취시켜 학교의 명예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들이 동참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신뢰형성,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

체육대회는 각 반별로 팀을 나누어 장애물달리기, 학부모 릴레이, 퀴즈왕 뽑기, 축구, 릴레이, 씨름, 줄넘기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종목별 성적을 평가하여 종합 성적이 우수한 반에게 대상과 함께 푸짐한 상품이 주어졌다.

동해중 박수현교장은 “체육대회는 학생들에게 상호 유대감을 고양함과 동시에 협동심 증진, 승자와 패자의 구별이 없는 평등심, 선후배간의 우의증진 등과 더불어 건전한 심성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체력적으로 건강한 육체를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으며, 서로간에 승자와 패자를 떠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는 “집안에서는 항상 어린애 같았던 아들과 함께 체육대회에서 함께 운동하며, 시험을 치루면서 내 아들이 이제 어른애가 아닌 의젓한 아이로 성장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나의 아들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람된 하루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중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성을 만들기 위해 특별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튼튼한 육체를 기르기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중 자매결연, 문화교류 활성화

일본 기타큐슈 문화교류, 광주 봉선중 자매결연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 풍물패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본 기타큐슈시의 중학생 문화교류에 참가하여 풍물패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풍물패는 일본의 꾸라메미나 중학교, 오토리 공원, 자연사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공연을 펼친다. 그동안 동해중 풍물패는 부산지역에서 중학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로원, 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선 행을 베풀고 있어 그 명성이 대단하다. 이러한 명성의 소문을 들은

기타큐슈시의 초청으로 이번 일본 지역에서 공연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영호남 지역간 우의를 도모하는 차원에 광주지역에 위치한 봉선중학교(교장 윤홍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10월 중순 광주 봉선중학교 교장과 교사가 방문하여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여 내년부터 매년 1회씩 학생 40명과 교직원 20명이 서로 교차 방문하여 상호간에 휴스태이를 제공하며 교육현장, 특별활동 등에 참가하여 자매학교에 대한 우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신행체험 ②

부처님 원력의 위대함



이가진 보살
(백월사 신정회 회장)

한번 따라 갔다가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백월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법의 인연을 맺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집주인 이주머니인 이종선 보살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항상 인자하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시는 보살님을 보면서 부처님의 원력이 대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도 저분과 같이 수행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퇴진하지 않도록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발원하여 지금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총지중에서 수행하면서 얻은 공덕은?

제가 총지중에서 수행하면서 기적같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제가 시집오기 전에 시부모님께서 사농은 작은 집이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그 집을 등기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했는데 마지막에 산 사람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집을 재판을 걸면서 집을 내놓으라고 해서 민사재판에 회부되어 7년이란 세월동안 법정에서 싸웠는데 기적으로 시효취득기간이 그해가 마지막으로 20년을 관리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어 시효취득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남편이 위암 3기 수술을 받아 위 전체를 들어내 소장과 식도를 이었는데 이 자리 불질 않아 3일만에 죽는다고 장례준비까지 했는데 백월사 사후와 전수님께서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야 하시면서 열심히 불공하라고 하시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울어가면서 남편을 살려달라고 가슴이 메어지는 심정으로 서원하고 불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그 당시 6명이 위암수술을 받아 같은 병실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속세의 인연을 끊었는데 저희 남편만이 살아나 지금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총지중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
지금부터 27년전 제가 갓 시집가서 새댁 시절에 셋방살이를 할 때 집주인이주머니께서 절에 다니신다고 하셔서 4월 초파일에

세 번째 기적은 충남 공주에 집과 텃밭을 사서 생활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던 집 앞으로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어 집은 도로로 편입되고 텃밭은 남아 있어 장사하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음식점을 건축하여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백월사에서 불공을 하였기에, 부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부처님의 원력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몸소 체험하며 항상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하게 되고, 남편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부처님의 공덕을 잊고 생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기 전에는 백월사에서 불공도 많이 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절에 자주 나가 불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절에 나가지 못하곤 합니다.

일심으로 서원하고 불공하면 모든 일이 성취된다

▶ 그동안 수행하면서 얻은 나름대로의 불공법은?
우리 불공법의 좋은 점은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않고 불공하는 시시불공 처처불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에 갈 때나 장사를 할 때 운전중 하면서도 옴니반메움을 노래 부르듯 염송하며 생활합니다. 제 입에서는 언제나 옴니반메움이 흘러나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가슴을 쓸어내리는 놀라는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옴니반메움이 입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옴니반메움 공덕으로 여러번의 기적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염송을 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옴니반메움을 지극정성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조금 살만 하니까 내내해지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심으로 불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갚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오로지 바쁘다는 핑계로 주위를 돌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어 부처님께 죄송하고 백월사 정사, 전수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옴니반메움은 저의 영원한 친구이요, 부처님이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총지중 수행법의 좋은 점은?
저는 총지중에서 수행하면서 실로 많은 공덕을 입으며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옴니반메움을 염송할 수 있다는 것, 진언 공덕의 위대함을 실감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수행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월사 교도들 자랑할 점은?

백월사는 초창기에는 아주 초라한 가정집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가정집이었지만 이곳에서 수행하는 보살님들은 많은 공덕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공덕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보살님들의 마음자리가 모두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 자리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백월사는 마음을 닦는 도량으로 이곳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보살님들은 모두가 부처님이십니다. 서로가 부처님을 모시듯 나이가 어린 보살님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어린 보살님들을 친 딸처럼 보살피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극락정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처님께서 아셨는지 이제는 예전과 비교하여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전당이 만들어지고 이곳에서 보살님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또한 훌륭한 정사, 전수님을 모시고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 총지중 종단과 백월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우선 종단에 너무 너무 감사함을 전합니다. 훌륭한 전당을 베풀어 주셔서 보살님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불공할 수 있음에 너무 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백월사 보살님들의 지극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종단의 지원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해서 우리 백월사 보살님들에게는 항상 죄송한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비록 제가 자주 절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보살님들이 두배 세배 더 열심히 불공하셔서 각 가정에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하시어 소원이 성취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나도 한마디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을 한다. 때로는 칭찬의 말, 때로는 꾸짖는 말, 함담하는 말, 감사의 말, 불평의 말 등 여러 종류의 말들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듯 말은 여러 종류가 있어 때로는 가시가 되고, 때로는 천만금의 금전보다 값진 말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하면서 말이란 참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곡되어 들려오는 말, 마치 말(語)이 말(馬)타듯 말(語)은 순식간에 천리를 달려가고 갈수록 눈송이처럼 점점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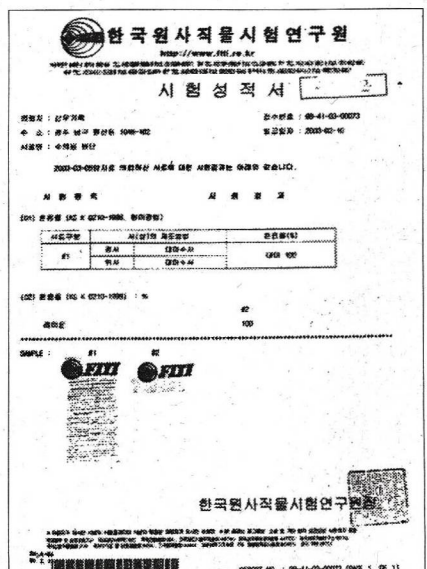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우리 주위에 말수가 별로 없지만 얼굴에는 온화함과 자비심이 가득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규칙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마치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로는 청산유수요, 성인군자가 따로 없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비천함과 비열

한말로 가득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말과 행위는 일치해야 하며, 항상 자신의 말과 행위에 거저과 허물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수많은 말이 오고가고 있다.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말보다 한 번의 선한 행동, 백마디의 말로 아첨하는 말보다 한 번이라도 어

르신을 따뜻하게 모시는 행위가 진정한 불자의 도리일 것이다. 갖가지의 말로 상대방에게 존경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참된 행위를 통해 상대방은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전당으로 제도되어 부처님의 극락정토가 실현될 것이다. (백순희/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孝는 만행의 근원... “진삼베 수의”로 孝를 실천하세요



수의(예복)이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과 모든 번뇌를 버리고 극락왕생할 때, 또한 조상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으로서 원단은 주로 진삼베를 사용했으며,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수의를 준비해 두시면 집안에, 우환과 삼재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누리다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어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입니다. 불교총지중에서는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으로부터 시험 성적표를 받은 100% 진삼베 원단으로 보증받아 제작한 수의를 교도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진삼베수의를

삼베(大麻)는 고유의 독특한 향균기능을 함유하고 있어 예부터 조상님들의 생활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진삼베수의를는 사부대중들이 입었던 수의로써 100% 진삼베(화순포) 220자를 사용하여 엄밀한 작업공정을 통하여 작품으로 제작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수의내용

男 : 도포, 도포띠, 두루마기, 두루마기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대님, 행진, 천금, 지금, 장매, 땃배 (총23종)
女 : 원삼, 원삼띠, 겹저고리, 속저고리, 겹치마, 속치마, 겹바지, 속바지, 머리싸개, 조발랑, 베개, 입싸개, 악수, 얼굴싸개, 손싸개, 턱받이, 버선, 족두리, 천금, 지금, 장매, 땃배 (총2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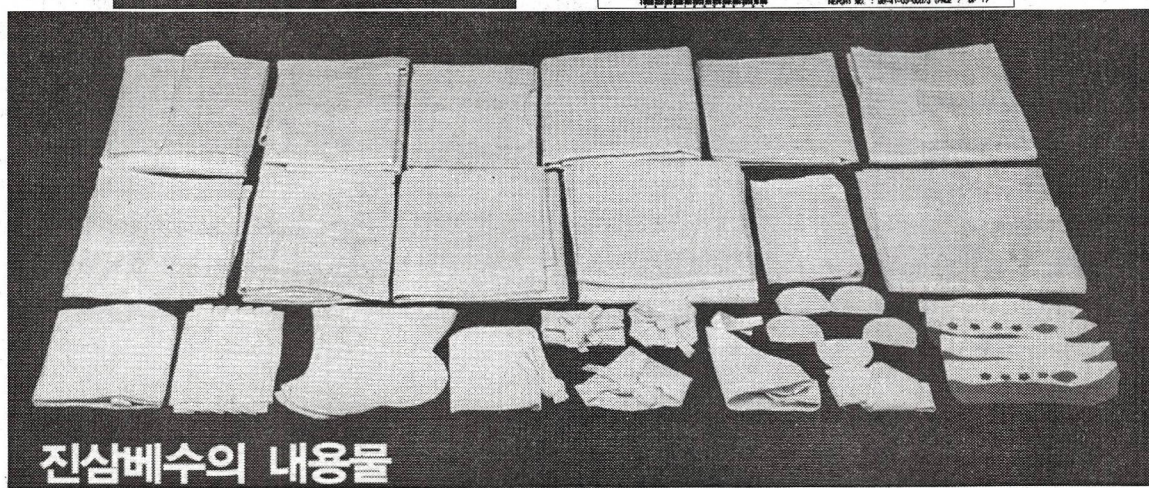
무료제공

본 수의를 구입하시면 건, 완창, 행진 각 10장씩과 명정, 관보, 습신, 예단 등 부속물 일절 및 아들, 며느리, 딸, 사위들이 입는 상복을 가족수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의보급가격

120만원(3회 분할납부 가능) 결제방법 : 온라인입금

연락처 : 불교총지중 동리원 (02-552-1080~3) * 수익금은 사원의 만다라 봉안불사에 쓰여집니다.



진삼베수의의 내용물

부처님 법으로 하나되는 원용 수행도량

높은 하늘에는 한 점 구름없이 맑기만 하다. 맑고 푸른 창공으로 펼쳐진 가을 창공을 바라보며, 인간의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풍성한 가을들판을 바라보며 넉넉하고 따뜻한 가을 햇살과 창공처럼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 오묘하고 신비한 밀법의 진언염송으로 수행하는 백월사를 찾아가 본다.

백월사 연혁

백월사는 총기5년 대전시 도마동 길분례보살이 소유한 주택 한동을 임차하여 법장서원당으로 개설한 후 총기9년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택을 매입하여 백월사로 개칭하였으며, 총기33년 백월사 부지가 도마동 재래시장 정화구역에 편입되어 부지가 매각하고 대전시 도마2동에 대지 103평, 연면적 226평의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여 서원당으로 개설하였다.

백월사에는 초대 상지화전수가 주교로 임명되었으며, 사총사 전수가 교화하셨으며, 현재 법우정사, 인지심전수가



리고 불행, 슬픔, 고통 같은 나쁜 것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면 하고 분별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또 하는 행동은 못된 것만 골라 하면서 그 댓가로 돌아오는 것은 행복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릇된 중생의 탐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살펴 미움과 원망심을 감사와 은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해야

『법구경』에 “언제나 자신의 몸을 보호하되 성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 몸이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덕행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라. 또한 자신의 입을 보호하되 성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도(道)를 생각할 수 있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자기 마음에 평온을 깨뜨리는 감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바탕이 마치 맑은 호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경우든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감정이 마음의 평온을 잃게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감정이 마음의 평온을 망쳐 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

하지 않고 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첫 번째 범인은 ‘성내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면 자기의 마음도 엄청난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성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생활의 평화는 부처님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활에서 나쁜 일이 생겨 기분이 안 좋을 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어서 마음의 평온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재빨리 ‘몸마니반메후’하고 염송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생활에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이유를 생각하기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하시는 대로 좋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을 잘 단속하여 잘못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중생제도를 위해 옹양정진하고 있다.

참고 견디며 사는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참고 견디며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바세계는 상대적인 가치가 항상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나타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고통의 영역에 속하는 슬픔, 시련, 장애, 죽음 등등과 즐거움의 영역에 속하는 해탈, 기쁨, 희망, 평화 등이 혼재된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개념인 선과 악이 있고, 밝음과 어둠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고, 남성과 여성이 있고, 위와 아래 등등 온갖 상대적인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바세계는 지속처럼 괴로움과 고통만 존재하는 절망의 세계도 아니고, 또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천상의 세계도 아닌 것입니다. 사바세계는 마음 갖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므로 참고 견디며 사는 세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보다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보면 어리석게도 평안, 즐거움, 기쁨 같은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희원(希願)할 뿐입니다. 그

후히 인생을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곧 슬픔이 되고, 슬픔이 곧 기쁨이 되는 사바세계의 이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저 남의 일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나에게만 좋고 기쁜 일만 오기를 바라는 이기심 때문에, 자신에게 생겨난 불행과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그 기쁨의 소중함을 알아 고만해지거나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는 겸허함이 필요합니다. 늘 자신의 덕과 허물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은혜를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쁨도 지나치면 곧 그것이 슬픔의 요인이 되는 것임을 알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웃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연에 초대받아 갔더니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기분이 좋다고 너무 지나치게 먹고 마시면 결국 배탈이 나고 과음한 죄로 망신당하는 일까지 생겨 남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표현함에 있어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재산은 또한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되지 없으면 후엔 아낄 것도, 잘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마음자리를 잘



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운수가 나빠서 그럴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마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유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생기는 나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의심과 두려움과 격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잘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자신에 관한 것은 우리들 자신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특별히 단속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음을 잘 보호해야 평소의 생활이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악한 생각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이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소 : 대전시 서구 도마2동 171-17
전화 : 042-527-5470



인터뷰

백월사 법우 정사, 인지심 전수



법우 정사 인지심 전수

고 생각합니다.

▶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스스로 원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교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끈을 다시 힘차게 묶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량을 마련해 주시는 등 종단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백월사 교도들은 이십 수년간 겨울엔 추위에 몸을 움츠리시고 여름엔 더위에 땀 흘리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을 부처님께서 가엾이 여기셨는지 백월사 전도량이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마시장 공영 주차장으로 편입되어 작년 6월 20일에 새로운 도량으로 이설하여 작지만 쾌적하고 따뜻한 서원당과 처음으로 공양처도 마련했습니다. 다시한번 새로운 도량으로 이설하는데 도움을 주신 종단에 감사드립니다.

▶ 일선사원에서 교화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월사 모든 교도들은 따뜻하고 끈끈한 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노 보살님과 젊은 보살님들은 서로 서로 딸과 친정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공경해 드리는 가족같이 훈훈한 분위기로 신행생활하고 있습니다. 새해 초부터 한 보살님이 만들어 오신 할 칼국수로 시작된 특별식점심 공양은 호박죽으로, 만두로, 송편으로 계속 이어지며 한 송밥을 먹는 서로를 아껴주는 법우들입니다.

작년부터 이민자 보살님이 침산동에 위치한 보살님의 밭에서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일부를 부식으로 지원해왔는데 올해에는 보살님이 100여평의 땅을 무상으로 백월사에 대여해주셔서 백월사 보살님들과 함께 옥수수, 상추 등 야채들을 따내려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경험을 통하여 보살님들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보람을 느껴 보았습니다.

▶ 미지막으로 총지종 및 백월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총지종 교도님들에게 지면으로 주재법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총지종 교도님들 “99-88”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99-88”이라는 뜻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건배사)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분들과 건배를 하실 때 자칫 실수를 해서 “88-99”라고 하시면 낭패보시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88세까지 구구절절하게 살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꼭 “99-88”이라고 건배사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편은 좋은 계절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힘든 세월을 맞기도 하고, 어떤 편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먼저 오고 나서 꽃피는 봄이 오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변화에만 하는 것이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일할 대상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다행히 행복하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님 법에 몰두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총지종 모든 교도분들이 “99-88”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불심(佛心)이 강하신 어머니님의 영향으로 아주 어릴적부터 어머니님과 함께 절에 다니며, 부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여 고등학교시절에는 불교학생회에서 제법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총지종과의 인연은 86년에 인지심 전수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 총지종 스승님들 중에서 젊은 세대로서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고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초발심이 변하여 곧 정각을 이룬다”

『화엄경 약찬계』의 말미에 해당되는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처음 발심한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정각을 이룬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붙들고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중생인 지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한결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총지종 승직자로 입문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굳은 마음이 한결같이 어지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뒤 돌아보고, 매일 매일 불공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며,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정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남다른 교화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일천한 경험이라, 매사에 서툴고 부족한 모습으로 교화에 임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님들, 각자님들과의 소중한 만남에 늘 감사드리며, 모든 보살님들과 각자님들이 저의 스승님이요,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기 위해 항상 부처님을 모시듯 웃는 얼굴로 즐겁게 생활하며 욕심에 쫓기고 어리석고 화 잘 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불만스럽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모든 보살님과 각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옹양정진하고 있습니다.

▶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간에 아집과 집착에 얽매어 살고 있고 나와 너를 살리는 자제가 아닌 서로 죽이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나”나 “너”다하는 편 가르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이도 싸워 왔습니다. 해방 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 동쪽끼리 피를 흘리며 싸웠고, 그 뒤에는 동과 서로 분열되어 다투며 싸웠습니다. 지금도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정파 간의 반목과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극대화되면서 서로를 죽이는 무한경쟁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를 걷어내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며, 모든 사람들이 공동된 원리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너’를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키워 나가면서 공존(共存)과 공생(共生)의 문화를 뿌리 내려야 한다

